

# 만남

07

2019

통권 546호

특 집 | 심과 회복



대한예수교  
장로회 영락교회



## 2019 기도대각성 운동, 120일간의 여정을 마치다

2019 기도대각성 운동이 지난 5월 31일 120일 간의 기도대장정을 마쳤다. 최종 기도충전 140,352 볼트(시간). 기도대각성 운동 최종일인 5월 31일 저녁에는 기도대각성 운동을 마무리하는 특별 금요기도회가 열려 120일 간의 영적인 여정을 되돌아봄과 동시에 새로운 영적 발걸음을 힘차게 내딛기로 결단했다. 사진은 5월 31일 특별금요기도회 시간에 전 교역자들이 특송을 통해 주님께 영광과 감사를 올리고 있다. (관련기사 15면, 50면)

사진 IT미디어부

### 표지설명



설악산수양관 뒤편 울창한 숲의 전경을 표지에 담았다. 이곳은 환경적 목사님께서 생전 나라와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머무시던 곳이다.

사진 이상현 기자

#### 영락교회 신앙지도 원칙

경건한 복음주의 신앙의 육성  
성서적 생활윤리의 훈련  
교회연합 정신의 구현  
세상에서 하나님공의의 실현

#### 4대 목표

교육  
선교  
성도의 교제  
봉사

## 교회표어

생명을 낳아 기르는 교회(딤후 2:1~2)

# 만남

## C O N T E N T S

### 이달의 말씀

안식, 하나님의 마지막 창조 | 김운성 02

### 특집 읽과 회복

그리스도인의 심 | 강승훈 04  
현대 그리스도인과 '워라밸' | 성석환 07  
순교와 선교의 현장으로 떠나요 | 박선이 10  
나의 퇴직 유랑기 | 우대권 12

### 연중기획 생명을 낳아 기르는 교회

잠들지 않는 간절한 기도의 삶 | 박규성 15  
우리들의 한 줄 간증 II 18

### 다음세대

뜨거운 여름! 풍성한 은혜! | 교육부 20  
부모의 자녀 이해 | 강경철 25

### 땅끝까지 이르러

미디어선교를 통한 하나님 나라의 확장 | 우예인 28

### 야곱의 우물가

기도할 때 지혜 주시는 하나님 | 박영희 30  
나를 새롭게 빚으시는 하나님 | 공형호 32

### 봉사와 섬김

건강한 여름을 위한 영양섭취 | 권오란 34

### 영락의 울타리

기도의 힘으로 성장합니다 | 한선희 36  
꿈과 신앙을 심어주는 교사 | 김동은 38  
탁구로 영락 성도들이 교제합니다! | 박흥기 40

### 문화광장

사랑을 선택하라 | 정하진 42  
지금까지 지내온 것 | 박신화 45  
바돌로매, 진실을 피하지 않은 사람 | 박정관 48  
7월의 영락문화공간 49

### 교회소식

2019 기도대각성 운동 외 50  
새가족 환영 56  
편집장 레터 58  
윤진경의 함께해보아요 59  
7월 목회력 60

### 2019년 7월호 통권 546호

발 행 2019. 7. 1.

발 행 인 김운성

편 집 인 정경섭

편집위원 이동훈 박선이 장덕진 김경옥 이미혜  
임대현 조성일 최윤미 서지원 장창일  
이준영 윤진경 우대권

발 행 처 영락교회 홍보출판부

주 소 04552 서울시 중구 수표로 33

전 화 02)2280~0114(대)

홈페이지 <http://www.youngnak.net>

디자인 편집회사 도인





김운성 위임목사

## 안식, 하나님의 마지막 창조

감리교의 창시자인 요한 웨슬리는 매 순간을 아까워하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분은 이런 탄식을 했습니다. “나는 마차를 기다리느라고 10분이란 시간을 영원히 상실했다. 오, 이 상실을 어디서 보상받을 것인가!” 최선을 다해 바쁘게 사는 사람의 말입니다.

현대 생활은 매우 분주하고 피곤합니다. 그러다 보니 휴가를 애타게 기다리게 되었고, 그것은 평소 생활이 그만큼 피곤했다는 반증입니다. 그러다가 모처럼 휴식이 오면 나사가 풀린 기계처럼 됩니다. 교통사고가 급증하고, 범죄가 부쩍 증가하고, 문란해집니다.

성경은 안식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2장 2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일곱째 날에 끝났다’는 것입니다. 좀 이상합니다. 창조가 여섯째 날에 끝나지 않고 일곱째 날에도 계속되었다는 말이니깐요. 그

렇다면 일곱째 날에 창조된 것은 무엇일까요?

이에 대해 11세기의 유명한 랍비였던 ‘이차크’는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메누하’ 혹은 ‘사바쓰’를 만드셨다고 했습니다. 메누하는 안식입니다. 안식일을 사바쓰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일곱째 날 맨 마지막으로 안식을 만드시고, 당신 자신도 안식을 누리셨습니다. 옛새 동안 만드신 만물 위에 안식이 첨가되자 비로소 창조가 완성되었습니다. 안식은 창조의 마침표요, 꽃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휴식은 목적이 아니며, 노동으로 돌아가기 위해 힘을 축적하는 것일 뿐”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되면 노동이 최고이고, 휴식은 노동을 위한 수단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는 노동을 더 잘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안식 자체가 목적입니다. 오히려 노동하기 위해서 안식하는 것이 아니라, 안식을 위해서 노동하는 것입니다. 제7일은 나머지 6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옛새가 제7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는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3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것이나 거룩하게 하시지 않았습니 다.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것들은 매주 중요한 것들인데,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성전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것들보다 가장 먼저 거룩하게 하신 것은 ‘안식일’이었습니다. 안식이 너무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는 우리에게 “이 날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모든 인생에 적용되는 대원리입니다. 안식 없는 인생은 미완성이요, 불쌍한 인생이기도 합니다. 성공했어도 안식이 없으면 불쌍합니다. 그런데 안식이 없는 가정이 많습니다. 초등학교 생들을 대상으로 부모님께 가장 원하는 것을 조사했더니, 50퍼센트 이상이 ‘짜우지 않으면 좋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쉼은커녕 천둥치는 가정이 많습니다. 제가 아는 어느 장로님께서서는 자수성가해 성공하셨고 자녀들도 명문대학을 졸업하고 잘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에는 평안과 쉼이 없습니다. 늘 갈등이 많고 불안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중세 수도원 규율은 엄격했습니다. 새벽에 기상해서 하루 여덟 번 기도회를 가지고, 몇 시간의 성경 읽는 시간이 있고, 각자의 특기대로 나가서 노동을 합니다. 그리고는 밤늦은 시간에 동시에 잠자리에 듭니다. 수도원의 모토 중 하나는 쉬지 않는 것입니다. 육체를 피곤하게 할수록 훌륭하

다고 생각했습니다. 심지어 채찍으로 자기 몸을 때리기도 했습니다. 가장 조용하고 쉼이 있을 것 같은 수도생활에도 안식이 부족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안식을 주시는 분입니다. 안식을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께 도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안식의 나라입니다. 안식을 무시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도 필요 없다고 말하는 셈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필요 없는 사람은 지옥에나 갈 사람인 셈입니다. 그래서 안식을 무시해 안식일을 범하는 것은 사형에 해당하는 죄였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안식을 사랑해 안식일을 잘 지키면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안식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떤 마음으로 안식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도 칠일에는 쉬셨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안식해야 합니다. 둘째는 신명기 5장 15절 말씀처럼 애굽에서의 구원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예였던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지지 않으셨다면 안식은 없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약하면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을 기억할 때 참 안식이 주어집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없는 안식은 저주일 뿐입니다. 세상의 안식이 내포한 문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안식은 쾌락의 추구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의 안식은 영원과 연결되어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참 평안으로 인도합니다. 올 여름 휴가철을 맞이해 영락 가족들이 하나님 안에서 참 안식을 맛보길 기원합니다. **만남**

## 그리스도인의 쉼



강승훈 목사  
상담부  
종로·성북교구

### 쉼과 안식

그리스도인에게는 쉼이라는 말보다 안식이라는 표현이 더욱 익숙할 겁니다. 의미적으로도 미묘한 차이 밖에 없고 그 말의 사용에 있어 같은 뜻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지만, 두 단어가 가지고 있는 무게감은 확실히 다릅니다. 왜냐하면 안식이라는 말의 용례는 신앙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은 안식이라는 말을 일상에서 듣기보다는 설교나 성경공부를 통해 먼저 접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 안식(창 2:3)하셨고 믿음의 선조들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한 것(신 5:15)처럼 우리도 한 주간의 하루를 거룩한 날로 정해서 예배를 드리는 종교적인 규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 영향으로 인해 안식일 날짜와 관련해서 이단이 속출하고, 지금도 안식일이나 주일과 관련해 여전히 혼란스러워하거나 논쟁을 벌이는 안타까운 모습들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안식은 그 본래의 뜻과 다르게 신앙의 척도를 보여주는 종교적 지표 개념이 되기는 쉬웠지만, 삶의 자리에서 경험하고 신앙의 실재를 표현하는 용어가 될 수 없었음을 목회 현장에서 볼 때마다 몹시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 쉼에 대한 생각

사전적 의미에서 쉼이라는 말의 뜻을 만족시키는 조건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고 있는 일을 멈추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그 멈춤이 편안함을 제공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온 일반적인 삶의 현장에서는 ‘멈춘다는 것’과 ‘편안함’을 게으른 사람들이 무책임하게 살아가는 모습으로 받아들이거나 사회적으로 부정적이고 낮은 말로 이해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시대가 변하면서 역사의 거대담론에 가려져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이들이 쉼이라는 말을 통해 인생에 대한 답을 묻기 시작했습니다. 최근들어 우리가 언론을 통해 접하는 조현병, 히키코모리(은둔형 외톨이), 자살 등과 같은 사회적 문제들은 바로 이러한 변화 속에 놓인 세상 사람들에게, 더 불어 참된 생명을 소망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던지는 물음입니다. 사람들은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찾고자 지난 시간들을 반성하며 생명력 있는 삶을 누리는 데 있어 부족했던 쉼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인생에서 얻게 되는 질문을 성경에서 찾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성경이라는 단 한 권

의 책을 판단의 기반으로 삼아 삶에서 진리를 발견하고 만나며 누리는 이데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매우 다양한 관점에서 안식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쉼과 관련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의 다채로운 제언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글을 통해 목회적 관점에서 참된 안식을 삶을 통해 발견하고 누릴 수 있는 두 가지 정도의 소견을 바탕으로 쉼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 쉼을 얻으려면 멈추어야 합니다

이 말은 움직이고 있는 것에 대한 반의적 행동인 ‘운동의 정지(靜止)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운행 중인 자동차가 적색 신호에 잠시 멈출 때에 엔진을 끄지 않듯이, 쉼이란 우리의 삶 전체가 생명의 역동성을 가지면서 동시에 제어될 수 있는 유기적 존재와 관련한 이야기라는 전제 아래 설명할 수 있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우선 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과열되거나 방향이 잘못되었을 때에 성찰하고 돌이킬 수 있게 하는 근원적 힘은 무엇입니까? 그러한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명료하고 확실한 기준은 어디에서부터 올까요?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가지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이미 쉼에 대해서 성서적인 이해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쉼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참된 쉼은 우리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인생의 주도권을 넘겨드리는 ‘하나님의 주되심(Lordship)’을 인정하는 것에서 얻어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인이셨던 에덴동산

의 쉼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부족함과 오류가 없는 완벽함이었기 때문에 피조물인 인간이 생각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속도와 방향이 모두 하나님의 주권적 질서 아래에서 보시기 좋았기 때문(창 1:31)입니다. 하지만 아담이 자기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고 자기 자신이라는 선택을 했을 때에 죄의 열매인 불안과 조급함 그리고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쉼을 잃어버린, 유리하는 인생(창 4:16)이 되었습니다.

예수님도 쉼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주되심’을 가지고 말씀하십니다(마 11:28~30).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지만 이것으로 쉼에 대한 주님의 말씀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예수님에게 진정한 쉼은 당신의 멍에인 십자가를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동일하게 삶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주신 십자가를 기꺼이 받을 때 배우고 얻을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히려 자신이 주는 멍에를 우리에게 메라고 하십니다. 삶에서 떠안거나 받아야 되는 인고(忍苦)의 짐을 지고 안 지고가 쉼의 본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아래 기꺼이 짊어져야 할 사명과 책임을 다할 때 누릴 수 있는 것이 참된 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 진정한 쉼은 함께 누려야 합니다

다음으로 쉼을 얻었다면 편안해야 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 사회는 숨 막히는 문화가 주류를



“당신은 우리를 당신을 향해서 살도록  
창조하셨으므로 우리 마음이 당신 안에서  
쉴 때까지는 편안하지 않습니다.”

— 어거스틴 <고백록>의 첫 머리글에서

이루고 있습니다. 자율성보다 통제, 개성보다 기능이 우선되는 분위기에서 살아가는 대다수 한국인들이 경험하는 일상의 자리는 쉼을 통해 얻는 편안함보다 이익에 따른 이해관계와 생존에 따른 긴장감(출 1:14)입니다. 당연히 이러한 풍토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사 55:1~2)와 상반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쉼을 단순히 한 개인의 인식과 생활의 문제로 보지 않고 공동체적으로 보아야 하는 이유가 됩니다.

세상은 죄악된 본성이 만들어내는 경쟁과 증오, 투기, 원수 맺는 것과 같은 삶의 태도를 통해 우리에게 극도로 긴장된 스트레스를 줍니다. 우리는 그런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술 취함, 호색함, 음행과 같은 방탕함의 문화(갈 5:19~21)를 먹고 마시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교회는 누구나 존재의 목마름과 배고픔을 느끼는 자들이 찾아와 영혼의 생수와 생명의 떡을 마음껏 마시고 먹으며 성령의 열매를 나누어 취하는 가시적인 미완의 하나님 나라(갈 5:22)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에서조차 진정한 쉼을 통한 만족을 조금도 경험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대망하는 하나님 나라에 관련한 신앙은 세상 사람들은 물론이거니와 믿음이 연약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생명과 삶에 대해 아무런 능력을 지니지 못한, 단지 관념적인 철학과 사상의 일부로 여겨질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쉼을 배우며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이 참된 편안함을 누릴 수 있는 에덴을 회복해가는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이 우리가 참된 쉼을 경험하고 누리는 첩경임을 성도님들의 삶을 보면서 절감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한 채 지옥과 같은 세상에서 피로하고 지쳐있는 영혼들의 생기를 살리기 위해 반드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하늘 아버지가 교회 공동체와 신앙의 여정 속에서 허락하신 참된 쉼을 충분히 나누고 함께 누려야 할 것입니다. **만남**



## 현대 그리스도인과 ‘워라벨(Work-Life Balance)’ 문화

최근 몇몇 대기업과 중소기업에서 주 4일 근무나 공동연차(징검다리 연휴에 전체 직원의 휴무) 등의 제도 실행이 확산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다. 복지 제도의 차이 때문에 중소기업을 기피한다는 여론도 있는 것을 보면, 이러한 변화는 앞으로 젊은 층의 취업양상에도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무조건 열심히 일하는 것보다 잘 쉬면서 일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회적 합의가 이제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는 것 같다.

‘워라벨(Work-life balance)’이라는 표현은 1970년대 후반 영국에서 개인의 업무와 사생활 간의 균형을 묘사하는 단어로 처음 등장했다. 이 단어가 우리사회에 등장한 것은 아마도 2017년 즈음이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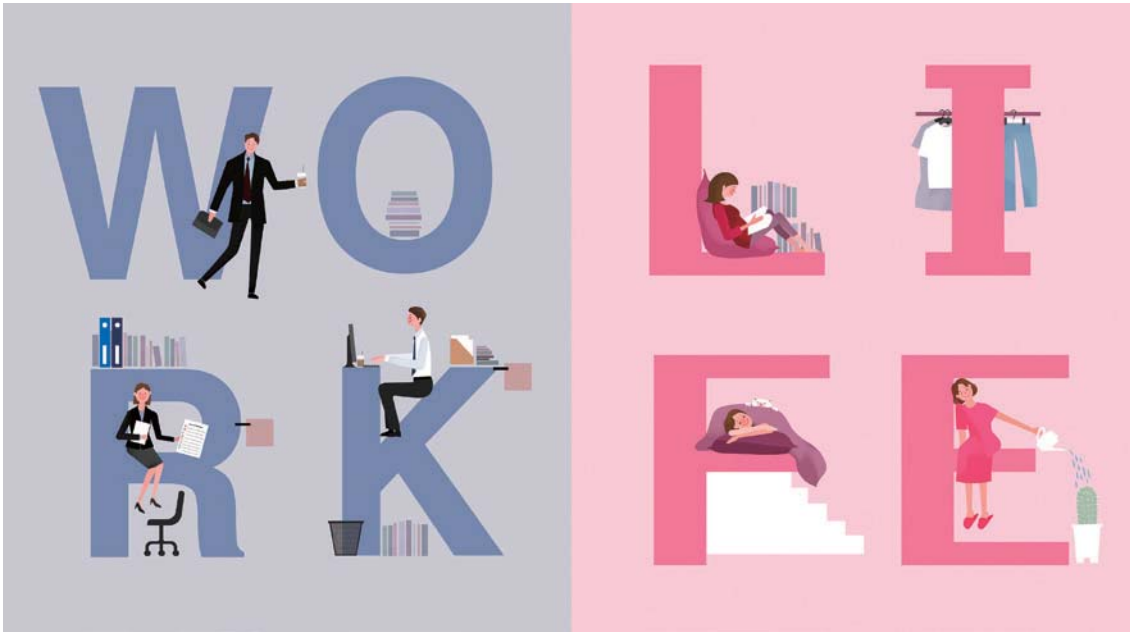
던 것으로 기억한다. 해마다 그해 트렌드를 전망하여 분석 보고서를 출판하고 있는 서울대 김난도 교수팀은 2017년에 ‘1코노미’, ‘각자도생’ 등을 예측한데 이어 2018년에도 비슷한 경향의 트렌드를 전망했다. 특히 ‘소확행(작지만 확실한 행복을 추구)’, ‘워라벨’과 같이 자기 자신의 삶을 최우선시하고, 타인에게 감정과 비용을 투자하지 않는 세태를 예측했던 것이었다.

이러한 트렌드 예측을 통해, 자기 자신의 발전을 주체적으로 확보하려는 노력을 볼 수 있다. 심리적 차원에서 볼 때 이런 경향은 사회적 관계망이 약해지고 감정의 소비가 덜한 온라인에서 주로 활동하는 젊은 직장인들에게서 나타난다. 이는 또 자기의 개성을 특별하게 표출할 방법을 찾으려는 욕구라고도 볼 수 있다. 다이어트와 운동 열풍, 가성비를 찾으면서도 희소 아이템에 대해서는 기꺼이 고비용을 지출하려는 이른바 ‘탕진잼(저축하지 않고 재미를 위해 탕진한다는 의미)’ 등이 이런 주장을 뒷받침하는 또 다른 양상이다.

얼마 전까지도 OECD 국가 중 노동/근로 시간이 가장 길다는 평가를 받았던 한국사회의 변화의 방향으로서 ‘워라벨’은 긍정적인 요소가 훨씬 많다.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고 외치던 모 회사 광고



성석환 교수  
강로회신학대학교 기독교와 문화 전공  
도시공동체연구소장



카피처럼, ‘워라벨’은 직장인의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로 자리 잡고 있다. 점심시간이나 퇴근 후 시간을 활용하여 평소에 하지 못했던 취미·여가생활을 즐기는 것은 자기계발과 발전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회사에서의 생산성도 높인다.

### 밀레니엄 이후 세대

‘X세대’나 그 이전 세대는 일이 중심이었다. 취업해 직장에 다니거나 노동을 통한 소득으로 자녀들을 양육하고 가정을 지탱했다. 생산중심의 산업구조와 수출호황으로 이 세대들은 실업걱정은 비교적 하지 않아도 되었다. 민주화를 위한 사회적 혼란 속에서도 이 세대 직장인들은 목표와 성과를 위해 자신의 시간을 헌신했고, 가장의 부재를 가정들도 곳곳하게 견디어 주었다. 이렇게 해서 중산층으

로 자리 잡은 이들에게 1998년 외환위기는 큰 충격으로 다가왔고, 이를 계기로 우리 사회의 경제구조와 직장문화는 신자유주의 체제로 급속하게 변해갔다.

직장은 이제 더 이상 평생 직업이 될 수 없게 되었다. 정상적으로 입사해서 은퇴하는 일은 보장되지 않았다. 특히 이들 두 세대의 자녀들 혹은 후배들-20세기 말, 21세기 초에 사회에 진출한 소위 ‘밀레니엄 세대’와 그 다음인 Z세대에게는 혹독한 미래가 기다리고 있었다. 이들이 경험하는 세계는 과거 이전 세대가 누렸던 직장문화나 라이프스타일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선택의 폭은 현저히 좁아졌고, 이들이 활용할 수 있는 사회적 자원도 민간화, 민영화 되면서 스펙이 더 중요해졌고 경쟁은 전에 없이 첨예해졌다.

최근 베스트셀러인 『90년생이 온다』는 Z세대에 걸치는 이들이 사회에 진출하면서 나타나는 새로운 사회적 트렌드를 잘 보여준다. 이전에 작동하던 직장문화가 이들에게는 구태의 거추장스러운 규칙들이다. 이전 세대와의 가장 큰 차이는, 이들은 조직보다 개인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조직을 위해 개인을 희생해야 한다는 생각은 하지 않는다. 개인의 행복과 만족이 더 중요하고, 직장은 많은 업무를 하면서 대가를 받으면 된다고 여긴다.

### 교회문화는?

이러한 ‘워라벨’ 문화는 한국 사회의 민주적 발전에 따라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볼 수 있다. 개인주의적이고 공동체성이 약화되었다는 부정적 평가도 있을 수 있으나, 전체적이고 조직적인 직장문화가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의 취향과 재능에 더 방점을 두는 것으로 바뀌었다는 것은 전반적인 사회의 민주적 발전 양상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한국경제가 어렵고, 국제적 여건이 불리한 상황에서 자칫 이러한 분위기가 효율성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 여길 수도 있으나, 그동안 개인의 희생과 헌신을 강조해온 기업문화의 체질을 바꾸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 대부분 전문가들의 주문이다.

사회분위기가 개인의 여가와 휴식을 보장하는 분위기로 바뀌고 있는 것에 비해 교회는 어떠한가? 어느 때부터인가 교회는 사회의 발전에 비해 더디게 변화해왔다. 더 전향적으로 변화해야 할 부분에 있어서는 사회를 선도하고, 부정적 문화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해야 하는 것이 현대의 교회가 분별해야 할 사회적 기능인데, 한국 교회는 대부분의

영역에서 사회보다 훨씬 더딘 변화를 보이면서 자칫 고립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교회 역시 우리 사회의 한 사회적 제도이기에 새로운 변화를 피해가기 어렵다. 성도들도 예전처럼 모든 시간을 교회봉사에 할애할 수 없다. 생계와 소득을 위해 이전보다 더 많은 시간을 일해야 하고, 맞벌이가 아니면 자녀교육이 어렵다. 앞서 살펴본 대로 정부와 기업에서 공무원과 직원들의 ‘워라벨’을 격려하고 지지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는 것을 보면, 교회가 신자들의 신앙양식이나 교역자, 교직자들의 사역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 성경의 가르침대로!

사실 ‘워라벨’의 의미는 성경에 기원이 있다. 성경은 일하고 안식하라고 명령했다. 심지어 노예들과 가축들과 땅도 휴식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말한다. 잘 쉬고 열심히 일하는 것은 개혁교회의 ‘직업 소명설’의 취지와도 부합한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건강하게 살아가자면 바로 일과 휴식의 균형이 필수적이다. 인간의 욕심과 탐욕이 이 균형을 깨뜨리면 소비와 물질에 지배되는 삶이 되어버린다.

걱정되는 것은, ‘워라벨’이 자칫 지나친 개인주의 문화를 정당화하거나 소비주의를 미화하는 방향으로 흐르는 것이다. 교회가 ‘워라벨’의 신학적 의미를 성도들에게 제대로 전달하고, 일과 삶의 균형을 통해,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기뻐하시기를 아름다운 삶을 영위해 나가도록 지도해야 한다. 교회문화도 목회자와 성도가 함께 일과 삶의 가치를 제대로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만남**

## 순교와 선교의 현장으로 떠나요

기독교가 한반도에 전파된 이래, 우리나라 곳곳에는 믿음과 희생, 봉사, 그리고 순교의 흔적이 자리 잡았습니다. 국내에는 수많은 선교 유적과 순교 유적이 있지요. 기독교 순교는 일제 강점기와 한국전쟁 때 주로 일어났기에 기독교 순교 유적 여행은 역사 기행을 겸하기도 합니다. 올 여름 가족들과 섬과 채움의 시간을 가지실 때, 곳곳의 기독교 유적지를 둘러보심이 어떨지요. 주요 휴가지 인근의 유적들을 소개합니다.

취재 박선이 선임편집위원

### 강원 동해안

초기 한국 교회의 부흥에 큰 역할을 한 캐나다 출신의 로버트 하디(1865~1949)선교사는 1901년 동해안 첫 교회인 간성교회를 비롯, 양양감리교회, 강릉중앙교회까지 여러 교회를 세웠습니다. 하디 선교사는 원산을 중심으로 강원도 동해안, 현재의 7번 국도를 따라 복음을 전했습니다. 1901년 강릉 중앙교회와 고성교회·간성교회·양양교회를 세우면서 한때 이를 하디 벨트라고 부르기도 했지요.

현재의 간성교회는 2016년 새로 헌당한 건물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글귀가 새겨진 돌비 뒤에 "교회 창립 1901. 7. 17. / 불꽃의 사람 로버트 하디 세움 / 선교사의 눈물과 열정으로 세워진 영동 첫 교회'라고 새겼습니다. 경포호 북쪽에 있는 강릉중앙교회는 지난해 평창올림픽을 치른 강릉 올림픽 센터와 가까워 다양한 경험을 즐길 수 있습니다.

동해 천곡교회에는 신사참배를 거부하다 1942년 순교한 이 교회 최인규 권사의 순교기념비가 서 있습니다.

### 제주도

1907년 평양 장로회신학교 1회 졸업생 7인 중 한 사람인 이기풍 목사(1865~1942)는 한국인 최초의 장로교 목사님입니다. 그는 1908년 제주도 최초의 선교사로 파송됩니다. 각종 토속신앙과 미신으로 가득했던 당시 제주에서 기독교 선교는 쉬운 일이 아니었지요. 처음에는 초가집에서 예배를 드리다 제대로 된 교회를 세운 것은 섬에 들어온 지 2년 만인 1910년, 삼도리에 있던 출신청(出身廳) 건물을 사서 성내교회를 창립했습니다. 현재 성내교회(제주시 관덕로2길 5)는 역사유적지 교회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한국 교회 이기풍선교기념관(제주시 조천읍 남조로 2125)은 제주 기독교 선교역사기념관을 겸하고 있습니다. 이기풍 목사는 제주도에서 약 7년간 사역하며 금성교회, 삼양교회, 성읍교회, 조천교회, 모슬포교회, 한림교회, 용수교회, 세화교회 등을 개척했습니다. 제주를 떠난 뒤에도 복음이 들어가기 가장 어려운 곳을 찾아다니며 사역하던 이 목사는 1938년 일제의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옥고를 치르





제주 비블리아성서식물원 내 '목자의 들'



전남 신안군 증도에 위치한 문준경전도사 순교기념관 전경

다 1942년 순교했습니다. 금성교회 옛 예배당(제주 최초의 예배가 시작된 곳)과 대정교회(이도종 목사의 순교사역지)도 중요한 기독교 사역지입니다.

비블리아성서식물원(한림읍 조성로17)은 성서에 기록된 식물을 테마로 한 식물원입니다. 오랜 준비 기간을 거쳐 2013년 개원한 이곳에서는 감람나무, 종려나무 등 성경에 나오는 낯선 식물을 실제로 볼 수 있습니다. 올리브 정원, 허브 정원 등 특화된 식물뿐 아니라 번제단, 갈보리언덕 등 성경에 나오는 주요 장면을 재현해 놓았습니다.

## 전남 서해안

전남 서해안의 신안군 증도와 영광은 선교와 순교의 역사 유적이 어느 지역보다 뚜렷한 곳입니다.

증도에서는 서해안 '섬 전도의 어머니'로 불리는 문준경 전도사 순교기념관(문준경길 234)과 증동리교회를 찾아볼 만합니다. 증도는 이탈리아에 본부를 둔 세계 슬로시티 본부의 인증을 받은 슬로시티(느린 마을)로, 한국에서 규모가 가장 큰 천일염 생산지인 태평염전으로 이름난 곳입니다. 지금은 연륙교로 연결되어 무안에서 자동차로 곧장 이어지지만, 예전에는 신안의 수많은 섬 중 하나였지요.

문준경 전도사(1891~1950)는 불행한 결혼 생활 중에 하나님을 만난 뒤 마흔이 다 되어 경성성서학원에서 신학했습니다. 이후 고향인 신안군으로 돌아가 증동리교회를 중심으로 진리교회, 대초리교회를 세우고 이 지역 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6.25 전쟁 중 교인들을 돌보러 증도에 돌아왔다 좌익에 의해 총살당했습니다. 2013년 문준경 전도사 순교기념관이 개관해, 이곳에서의 기독교 역사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영광군에서는 전 교인이 순교한 야월교회와 염산교회가 많은 기독교인들의 발걸음을 부르고 있습니다. 이 두 교회는 호남지역 선교에 헌신한 유진 벨 선교사(1868~1925)가 세운 곳입니다(광주광역시 양림동 호남신학대학 구내 선교사 묘역에는 유진 벨 선교사 묘소가 있습니다). 염산교회는 1950년 6.25 당시 퇴각하지 못한 공산군이 교회를 불태우고 신도 77명이 순교한 곳입니다. 야월교회에서는 교인 65명이 순교했습니다. 이곳에는 호남 지역의 기독교 역사와 일제 탄압, 6.25 당시 공산군의 학살 내역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특히 야월교회와 염산교회의 순교자 사진과 '맞잡은 손' 조형물이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만남**

# 나의 퇴직 유랑기

- 묵묵히 바닥만 보며 걷던 길의 끝에  
하나님이 없었을 때



“철이 없구나.”

“감사할 줄을 모르네.”

“너는 직장인들이 다 우습게 보이냐?”

이 말들은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준 뒤에 들은 말이 아니다. 그저 내가 다니던 회사에 퇴직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을 때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로 부터 들었던 말이다. 일단 퇴직 이유부터 밝히자면 간단했다. 지금 맡은 일을 향후 수십 년 동안 해낼 자신이 없었다. 하루 열두 시간은 가볍게 넘겼던 근무시간, 들어온 급여를 살펴볼 시간도 없는 업무 강도, 멍한 시선 따라 마음을 산책시킬 여유가 조금도 허락되지 않았던 시간들. 물론 요나서를 읽으면서 버티던 때도 있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일 거야, 내가 못나서 버티기 힘들어하는 것뿐일 거야.

하지만 ‘요즘같이 힘든 시대’에 직장을 갖게 됐다는 감사함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회의감이 들어오기까지는 일 년으로도 충분했다. 나는 왜 이 직장을 선택했을까? 문득忆을했다. 항상 ‘현재에 충실하라’는 말에 고개를 끄덕거리면



우대권 성도  
강남교구  
홍보출판부 편집위원

서도, 그 현재에 내가 무엇을 하고 싶었는지는 귀 기울여본 적이 없었다. ‘현실적으로 생각하라’는 말에 아직 다가오지 않은 미래와 내가 벌게 될 돈을 걱정했으면서도, 내가 무언가를 좋아한다는 사실 역시 현실이라는 건 생각해본 적이 없었다.

사실 가장 큰 문제는 따로 있었다. 정작 이 일을 그만둬도, 내가 좋아하고, 평생 할 만한 일이 무엇인지 모른다는 것이었다. 인생을 살아가며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기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그 일이 도무지 무엇인지 감도 오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계획하신 일도 대체 무엇일까, 대충 꺾꺾 참고 억지로 가정을 꾸리고 늙다 보면 ‘아, 그런 것이었구나’ 깨닫게 될까, 아니면 그때는 더 용기 있게 발을 돌리지 못했음을 후회하게 될까?

결국 내가 내린 결정은 ‘퇴직 후 시간을 갖자’였다.

그래, 백수가 되자. 딱 육 개월만 쉬어보고, 그 다음 다시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열정을 불사르며 취업문을 두드려보자. 그때 가서 “아이고 제가 생각이 짧았습니다”며 공개 채용을 시작한 회사의 면접실 문을 붙잡고 무릎을 꿇고 빌게 되는 경우가 있더라도, 지금 당장 후회 없는 선택을 하자. 못 가 본 곳, 가장 가고 싶었던 곳을 가보며 머리를 식히고 나 자신도 돌아보자.

그렇게 정산된 퇴직금을 확인하자마자 나는 한 달 동안의 여행을 떠났다. 별 계획도 없이, 왕복 비행기 표만 손에 든 채.

## 런던, 파리

시작부터 험난했다. 여러 가지 일이 많았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입국 심사 때 직장을 그만뒀다

는 내게 이유를 물어본 심사관이었다. 짧은 영어로 “행복하지 않아서 그랬다”는 대답에, 그는 영어로 “요즘 젊은이들은 포기를 잘 한다”는 말을 남기며 도장을 찍어줬다. 와, 직장에 따른 세대 갈등은 나라를 불문하고 존재하는구나.

그렇게 유럽의 대표적인 대도시를 돌아보며 느꼈던 건, 세상에 도망갈 곳은 없다는 것이었다. 색다른 건물, 처음 보는 양식 등 생소한 아름다움 속에는 비 맞으며 뛰어다니는 정장 차림의 직장인들, 한숨 쉬는 학생들 그리고 담배연기 속에 한숨을 실어 보내는 근로자들이 있었다. 아름다움 속에서도 만난 익숙한 절망감은 내게 익숙지 않은 감정이었다. 문득, 모 만화에서 읽었던 “망쳐서 다다른 곳에 낙원이란 없다”는 말이 떠올랐다.

## 베른, 인터라켄, 그린델발트

그 묘한 절망감을 이겨내게 한 것은 사람을 작아지게 만드는 자연 경관이었다. 가격에 울고, 주린 배를 움켜쥐고 대부분의 거리를 걸거나 자전





거를 타면서도, 그동안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스위스의 모습은 참 여러 생각을 갖게 했다. 어찌 이토록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셨으면서도, 저희에게는 이를 다 돌아볼 만한 틈을 만들어주지 않으시나요, 주님.

그 열흘이 넘는 긴 일정 속에서 나는 자신을 돌아보게 됐다. 잠깐의 시간이 생기면 나는 제일 먼저 무엇을 했나, 잠시라도 하나님께 시간을 내어드리기보다 그 순간 나를 달래줄 세상 속 무언가를 찾지 않았던가? 사람들, 게임, 노래, 운동, 혹은 또 다른 무엇을. 그 모든 위안거리를 벗어 던지고 여행을 떠나, 나를 작아지게 하는 그 커다란 자연을 앞에 두고서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지금까지 무엇을 했는지 돌아보게 됐다.

### 잘츠부르크, 빈, 프라하

클래식 가락에도 덩실덩실 춤을 추고, 백발의 어르신도 버스킹을 하는 동유럽에서 느낀 것은 간단했다. 음악에도 간주가 있고, 그림에도 여백이 있어야 더 아름답듯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도 분명히 여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단순히 짝 들어찬 스케줄과 세상의 일에, 이만큼 많은 일을 했다면 뿌듯함을 느끼고 잠들게 되면 하나님 없이 교만해진 삶으로 가기 쉬울 테니까. 건물들이 아기자기하게 길게 늘어선 거리와, 그 어느 곳보다

도 다양한 색을 머금은 하늘 아래 내 생각과 시선이 마음 가는 대로 돌아다니도록 두면서,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워진 머리로 새로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 여행 그 이후

계획은 간단했다. 퇴직 후 뱅뱅 돌려있는 이제부터의 삶을 다채롭게 채우겠다는 것. 취직 준비, 당연히 해야지. 좋아하는 일에 대한 탐색, 무조건 해야지. 생활비 마련을 위한 다분한 노력, 절대로 멈추면 안 되지. 다만 그 이전에 내가 나를 위해 뭔가를 채워 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나를 비워낼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됐다. 사실 대단한 깨달음은 없었다. 이전에는 무조건 짹짹 들어찬 삶, 돈은 아무지게 벌고 내게 필요한 인맥을 가꾸고 미래를 위해 외국어를 비롯한 자기계발을 하는 삶이 이상적이라 생각했었다면, 그게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정도다. 하나님이 내게 뭘 주실까만 생각했던 신앙이, 내가 뭔가를 드릴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된 정도. 고작 그 정도의 소소한 변화였지만, 그것만으로도 인생을 바라보는 큰 틀이 바뀐 것 같았다. 그리고 그런 막연한 기대만으로도 내 삶은 이전보다 훨씬 나아질 것이라고, 퇴직금을 쏟아 넣은 한 달의 여행을 통해 나는 확신했다. 그리고 여전히, 퇴직에 대한 후회는 없다. **만남**





# 잠들지 않는 간절한 기도의 삶

## - 2019 기도대각성 운동을 마치며



박규성 목사  
강남교구  
목양부, 권사회

2019년은 영락교회 성도들에게 정말 특별한 해로 기억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월 1일부터 3일간 진행된 신년기도회를 시작으로, 5일에는 특별새벽기도회, 그리고 4번에 걸쳐 진행된 특별금요기도회를 통해서 기도를 예열시키고 본격적으로 2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120일간 진행된 기도대각성 운동을 통해서 많은 성도들이 기도의 자리를 찾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함께 진행된 '한 줄 간증문'에서 많은 성도들이 고백한 것처럼 기도대각성 운동은 잠자던 영혼을 깨워 기도의 자리를 찾게 해 주었고, 성도들은 수많은 응답의 기쁨과 회복의 은총을 누릴 수 있었으며 잃어버렸던 기도의 열정을 다시금 불태우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분명 성도들의 영적인 흐름을 바꾸는 중요한 전환점을 제공해 주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월부터 포함시킨다면 무려 5달 동안이나 성도들은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기도대각성 운동에 동참하게 되었고, 기도의 영향을 받았으며 많은 성도들이 열심히 기도의 자리를 지키면서 목표했던 12만 시간을 넘치도록 채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기도대각성 운동이라는 것은 어느 특정 기

간에만 해야 하는 이벤트가 아닙니다.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계속되어야만 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사무엘은 기도하기를 쉬는 것이 죄라고 말했으며, 바울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권면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교회에서 강제로라도 기도대각성 운동에 동참하라고 계속해서 권면하고 자극을 주면 어쩔 수 없이 따라가게 되지만, 강제성이 사라지고 자발적으로 기도하라고 하면 슬그머니 동력을 잃고 방향하던 옛 사람으로 되돌아갈 우려가 큰 법입니다. 또 기도대각성 운동 기간에 영적전쟁에서 대승을 거두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언제 그랬냐는 듯이 엘리야처럼 오히려 영적인 깊은 탈진과 방향을 맞보게 된다면 더 큰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는 더욱 더 근신하여 깨어 기도해야만 할 것입니다. 누가 시켜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스스로 쉬지 말고 기도하는 영적인 체질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는 영락교회가 기도의 불길을 지피던 때는 어찌할 수 없다가도 기도의 불길이 시들어지는 때에는 우는 사자처럼 공격할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기도대각성 운동은 끝이 났지만, 기도의 삶은 결코 끝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도는 습관이 되고 체질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림1

예수님께서서는 이처럼 기도가 습관이었고 체질이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체포되기 전에도 늘 그러셨던 것처럼 믿음직하고 든든한 3명의 제자들을 함께 데리고 겔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그림11)은 이처럼 겔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그린 성화 중에서 가장 유명한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액자로 걸어 놓으신 분들도 많을 겁니다. 하지만 그때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던 모습은 그림처럼 점잖고 품위 있는 멋있는 모습으로 조용히 기도를 드리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주님은 겔세마네 동산에서 너무 슬프고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었다(마 26:38)고 말씀하실 정도로 고통 가운데 절규하며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고 신신당부 하셨지만(마 26:41) 믿는 도끼에 발등이라도 찍히듯이 믿었던 제자들은 모두 잠들어 버렸고, 돈궤를 맡겼던 가롯 유다는 지금 자기를 잡겠다고 로마 병정들을 이끌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 죽음의 공포가 코앞까지 들이닥쳤기 때문에 인간 예수로서 드리신 고뇌의 기도는 처절한 절규였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셨기에(눅 22:44) 거의 탈진하다시피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야의 탈진과 주님의 탈진은 차원이 다른 탈진이었습니다. 엘리야의 탈진은 이세벨을 피해서 도망치다가 느낀 두려움과 도피의 탈진이었지만, 주님의 탈진은 죄악으로 인한 인간의 탈진을 대신하기 위한 십자가 사랑의 탈진이었습니다.

(그림22)는 것처럼 피를 토하듯 간절한 절규의 기도를 드리시고, 이마에 핏빛 땀방울을 흘리며 탈진하신 주님을 천사가 부축하고 있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천사가 안타까운 얼굴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데 아마도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꼭 이렇게까지 하셔야 하겠습니까? 자기들 살리려고 이렇게까지 고통스럽게 기도하며 탈진하신 예수님의 마음도 몰라주고 저기 잠이나 자고 있는 인간들이 무엇이기에 이러시는 겁니까? 여기서 그냥 멈추시지요! 이러다가 예수님께서 십자가도 지시기 전에 여기서 쓰러지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도 알지 못하는 무심한 제자들은 자기들을 구원하기 위한 주님의 고뇌와 절규의 기도를 외면한 채 깊은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결국 얼마 전까지도 서로 높아지겠다고

1 독일 출신의 미국화가인 하인리히 호프먼(Heinrich Hofmann)이 1890년에 그린 그림으로, 미국 뉴욕의 리버사이드 교회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이 그림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복제된 예수님의 성화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2 르네상스 시대의 베네치아 화가 파올로 베로네제(Paolo Veronese)가 1584년에 그린 그림입니다. 베로네제는 제가 2018년 5월 만남지에 기고했던 글에서 소개했던 ‘가나의 혼인잔치’를 그린 화가입니다.

자리싸움이나 하던 제자들은 주님이 붙잡히시자 모두 도망쳐 버렸고, 주님을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기도대각성 운동은 제자들처럼 영적인 깊은 잠에 빠져있던 성도들의 잠을 깨워 기도의 자리를 찾게 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제자들처럼 깊은 잠에서 깨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영은 잠들어 있는데, 육은 높아지려고만 하는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남에게 주목받고 인정받는 자리라면 열일 마다하지 않고 찾아다니면서 정작 힘들고 어려운 고난과 헌신의 자리는 이리 저리 피하려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신 분들은 다시는 잠들지 마시고, 주님을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기도와 헌신의 자리를 굳건하게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도 깊은 잠자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계신 분들은 영적인 갈급함으로 나아가셔서 속히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 기도의 불길을 태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잠들지 않는 간절한 기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영락교회의 기도의 불길은 활활 타오를 것이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들로 인해 영락교회는 영적인 고지를 점령하는, 이 시대의 영적인 전진기지가 될 것입니다. **만남**



## 우리들의 한 줄 간증 II



이번 기도대각성 운동에 참여하면서 영원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는 기도를 시작하고, 내 스스로 회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 이OO

기도할 때 세상 근심과 걱정을 이기게 하시고 언제나 기쁨과 평안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 최OO

부모님 네 분 모두 노환과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계시는데, 간절히 기도드리며 영혼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시고 애타게 모든 영혼들을 찾으시는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 정OO

세상에서 얻은 어두운 마음을 내려놓고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하며 평안을 구하는 것이 나의 삶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방법임을 깨닫고 있습니다. - 김OO

감기몸살로 기도가 시들해졌었는데 1줄 간증문을 읽으며 다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 최OO

기도대각성 운동 후 기도와 함께 성경통독에도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신약을 시작으로 모세오경을 지나 역대상 부분을 영어 성경으로 읽고 있습니다. 제겐 처음 있는 일이며, 말씀을 인용한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 김OO

용서하고 싶은 사람을 용서할 수 없었는데 기도 중에 예수님을 묵상하며 용서가 저절로 되었습니다. - 이OO

저의 능력과 수고로 여기까지 온 줄 알았는데 주님의 기도로 여태껏 감사히 살아 왔다는 것을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 김OO

오랜 시간 마음의 고통으로 하나님을 멀리했던 언니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언니에게 마음의 평강을 주시고, 하나님께 늘 붙어있는 가지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 성OO

“내가 네 눈물을 보았고 네 기도를 들었노라” 말씀하시며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 것이라!”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 김OO





기도하는 그 시간이 행복합니다.  
기도의 시작은 언제나 불평과 불만이 있지만  
하나님께서서는 언제나 제가 얼마나 풍족하고,  
부자의 삶을 사는지 깨닫게 해주십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 최OO

인간관계로 인한 마음의 고통과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시야를 넓혀 주시며 참 평안을 주시니 감사  
드립니다. 아멘. - 조OO

내가 중보하는 분들이 주님께서 나보다  
더 사랑하고 아파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최OO

일상생활에서 찬양이 회복되어 감사드립니다.  
- 유OO

제가 교통사고로 시각장애 1급이라 글을  
읽을 수가 없어서 다른 사람에게 기도책을  
읽어달라고 했는데, 내용이 너무 은혜롭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책을 쓰신 목사님들께  
감사드립니다. - 전OO

청년부와 대학부가 더욱 주도적으로  
북한선교의 주역이 되도록 청년, 대학생과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 김OO

기도를 할수록 교만의 죄를 드러나게 하시고  
끊임없이 나의 의로움을 증명하려 하였음을 깨닫게  
하셔서 회개합니다. 죄인 중의 죄인을 용서해주시  
고 사랑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 이OO

하나님이 저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주셨으며,  
역사하는 믿음을 주셨음을 또 새롭게 깨닫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 최OO

부족한 저를 기도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지 못하여 부끄럽고 응답도 못 받았  
지만, 주님께서 이루어주실 줄 믿습니다.  
앞으로 기도의 줄을 놓지 않고 열심히 기도하길  
원합니다. 저를 붙들어 주세요. - 서OO

기도대각성 운동에 참여하며 제목이 큰 기도  
10개 안에 279개의 사랑하는 사람 이름과 간구  
내용을 적어놓고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 응답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드립니다. - 박OO

저도 모르게 집에 들어오자마자 소파에 앉아  
기도하는 저의 모습을 보며 놀랐습니다. - 박OO



## 뜨거운 여름! 풍성한 은혜!

여름은 우리 자녀들에게 영적 수련과 신앙 성장의 계절입니다.

각 교육부서가 준비하는 여름사역의 주요 내용들을 지면에 함께 모았습니다.

제공 교육부

### 영아·유아·유치부 여름성경학교

일정 : 영아부 7월 6일(토) ~ 7일(주일)  
 유아부 7월 13일(토) ~ 14일(주일)  
 유치부 7월 20일(토) ~ 21일(주일)

장소 : 본 교회

주제 : 두 손 꼭 ~ 하나님 도와주세요!!



영아·유아·유치부는 우리 교단(예장 통합) 103회기 총회 주제인 ‘영적 부흥으로 민족의 동반자 되게 하소서’(합 3:2)를 따라 이번 여름성경학교 주제를 ‘두 손 꼭~하나님 도와주세요!!’로 정했습니다.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하여 당시 교회의 역할을 되돌아보고 지금의 모습을 회개하며 다시 한번 영적 부흥을 통해 민족의 동반자 되는 교회를 그려 보고자 합니다.

찬양과 말씀, 성경학습과 특별활동을 통해

우리 자녀들이 나라를 위해 간절히 기도했던 에스더와 느헤미야 두 사람의 기도를 접하게 함으로써 우리 어린 자녀들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이번 여름성경학교를 통해 영아·유아·유치부 어린이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지니며 나라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어린이가 되길 소망합니다.



### 사랑부 여름성경학교

일정 : 8월 9일(금) ~ 11일(주일)

장소 : 제주 명성아카데미하우스

주제 : 한라에서 백두까지

사랑부는 8월 9일(금)부터 11일(주일)까지 제주도에 위치한 명성아카데미하우스에서 ‘한라에서 백두까지’라는 주제로 여름성경학교를 진행합니다. 이번 여름성경학교에서는 복음통일을 준비하며 통일 후 북한에 세워지게 될 사랑부 공동체의 모습을 그려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남쪽 끝에서 시작된 기도와 꿈들이 북녘땅 끝까지 이어지기를 바라며, 한반도가 주 안에서 하나 되기를 꿈꾸고자 합니다.

더불어 사랑부 학생들이 평소에 쉽게 접할 수 없는 해수욕장 물놀이와 캠프파이어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준비하는 모든 과정과 마치는 순간까지의 안전을 위해 많은 기도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 유년·초등·소년부 여름성경학교

일정 : 7월 26일(금) ~ 28일(주일)

장소 : 유년부(경기 포천 아침햇살수련원)

초등부(영락기도원)

소년부(경기 용인 청소년수련원)

주제 : 위대한 여행 #GOD

아동부(유년·초등·소년부) 여름성경학교는 ‘위대한 여행 #GOD’(롬 12:2)이라는 주제로 진행됩니다. 예배와 공과공부를 비롯한 다채로운 활동을 통해 사도 바울의 전도여행을 함께 따라가며 기독교 가치관에 대해 배울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여름성경학교 시간에 진행될 이 ‘위대한 여행’을 마치게 되면 하나님(GOD)이 아동부 친구들의 삶에

‘태그(#)’되어 인생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성경학교를 통해 아동부 친구들이 성경적 세계관으로 무장되어 세속적 세계관을 무너뜨리고,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도록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 중등부 여름수련회

일정 : 7월 26일(금) ~ 28일(주일)

장소 : 경기 양주 딱따구리 청소년수련원

주제 : Breakthrough(부제 : 복음의 능력)

중등부는 7월 26일(금)부터 28일(주일)까지 경기도 양주 딱따구리 청소년수련원에서 'Breakthrough(부제:복음의 능력)'를 주제로 여름수련회를 진행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믿음의 청소년들은 다양한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세상 문화는 청소년들의 삶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자아를 형성해가는 시기에 겪게 되는 혼란은 학생들의 삶을 뒤흔들고 있

습니다. 이러한 청소년들이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강력한 돌파구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중등부는 이번 수련회를 통해 암담한 시대적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세상을 돌파했던 엘리야의 삶을 재조명하게 될 것입니다. 나아가 중등부 학생들이 세상의 가치에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과의 인격적 만남을 통해 담대하게 복음으로써 자신과 세상을 변화시켜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 베드로부 여름수련회

일정 : 7월 13일(토)~14일(주일)

장소 : 영락기도원

주제 : Live by faith, not by sight

베드로부는 7월 13일(토)부터 14일(주일)까지 영락기도원에서 여름수련회를 진행합니다. 송실대 함승수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Live by faith, not by sight'라는 주제로 은혜의 말씀을 나눌 예정이며, 입시를 앞둔 수험생들을 위

해 함께 뜨겁게 기도하는 중보기도의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아울러 수험생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무너진 열정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기 위해 CCM 가수 김상진, 김지민님을 모시고 수험생 힐링콘서트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수련회를 통해 베드로부의 모든 수험생들이 하나님 앞에서 지친 마음을 위로받고, 마음의 결단과 다짐을 새롭게 함으로써 그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새롭게 세워지는 복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등부 여름수련회

일정 : 7월 25일(목) ~ 28일(주일)

장소 : 충북 충주 한마음수련원

주제 :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고등부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요 21:17)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주제로 7월 25일부터 28일까지 여름수련회를 진행합니다. 이 세상 그 누구보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영락 고등부 친구들이 되고자 선생님과 학생들이 한마음으로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먼저 말씀 앞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말씀

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며 자신을 돌아보고, 말씀과 성령으로 새롭게 되는 시간을 갖고자 기도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며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려고 합니다. 거룩한 성령께서 고등부 가운데 임하셔서 모든 선생님들과 학생들을 새롭게 하시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영락 고등부가 하나가 되어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마음과 몸의 진정한 심을 누리려고 합니다. 예배만이 아닌 삶 속에서도 예수님을 만나고 사랑하는 고등부가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 고등부 비전트립

일정 : 8월 4일(주일) ~ 10일(토)

장소 : 인도네시아 수라바야 지역

주제 :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아가 2:13)

고등부는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라는 아가서의 말씀을 주제로 비전트립을 진행합니다. 10주간에 걸친 비전트립 제자훈련과 5

박 6일간의 인도네시아 수라바야 지역 비전트립을 통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사역에 동참하고자 합니다.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비전트립 기간 중의 모든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 대학부 여름수련회

일정 : 7월 3일(수) ~ 6일(토)

장소 : 충남 태안 신두리 '하늘과 바다 사이 리조트'

주제 : 선한 능력으로 서는 세대

대학부는 수련회 강사로 이승제 목사님(가까운교회 담임)을 모시고 '선한 능력으로 서는 세대'라는 주제 아래 여름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학부는 이번 수련회를 통해 청년의 삶을 기대하고 부르시는 주님의 선한 역사에 동참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영락 대학부의 벗님들이 하나님의 선한 능력으로 각자의 인생과 삶을 새롭게 바라보고, 그 선함으로 서로를 바라보며 교제 가운데 함께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아울러 그 능력을 힘입어 자신의 삶을 향해 다짐하고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 청년부 제43차 하기선교봉사

일정 : 8월 13일(화) ~ 8월 17일(토)

장소 : 충남노회 중·남부시찰 9개 교회  
(충남 보령, 홍성, 예산)

주제 : 빛의 자녀들이여 행하라! (엡 5:8)

청년부는 8월 13일(화)부터 17일(토)까지 '빛의 자녀들이여 행하라'라는 말씀을 주제로 충남노회 중·남부시찰 소속 9개 교회가 위치한 충남 보령, 홍성, 예산 지역에서 제43차 하기선교봉사 활동을 펼칩니다. 청년부는 지난 5월에 있었던 '2019 영락청년 선교비전'을 통해 영락 청년들에게 주신 선교적 사명을 다시 한 번 되새기며 기도하는 가운데 이번 하기선



교봉사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충남노회 중부시찰의 목양교회, 신동리교회, 세곡교회, 매봉교회, 용리제일교회, 남부시찰의 무창포교회, 남포신흥교회, 주사랑교회, 성주제일교회 등 총 9개의 현지교회에서 복음전도, 청소년과 어린이사역, 의료봉사, 문화선교, 찬양선교, 환경개선, 마사지 봉사 등 다양한 사역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 부모의 자녀 이해

## 사랑의 지도력(leadership)과 계시적 칭찬



### 1 사랑에 대해서 자주 하는 오해 2가지

#### 누군가 또는 무언가를 좋아하는 것은 어려운 행위가 아니다

누군가를, 무언가를 좋아하는 것은 사실 어려운 행위입니다. 또한 사랑은 상대의 고통을 감지하는 행위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이 과거에 겪었던 고통의 내용을 들을 때 함께 고통을 느끼며, 사랑하는 사람이 현재 겪는 어려움에 함께 어려움을 느낍니다.

같은 예로,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형상인 사람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느끼는 고통을 동일하게 느끼게 되셨습니다. 사람이 느끼는 고통을 그대로 느낀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살아왔던 방식을 내려놓으시게 됩니다.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신이셨는데, 하나님은 피조물 즉 인간이

되기로 결심하십니다(빌 2:6~7).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를 위해서 내가 상처받고 고통받을 수 있는 상태로 내어 주는 행위입니다. 내가 살아온 방식이 있지만, 상대방의 고통을 느끼며 내가 살았던 방식을 버리고 내려놓게 되는 것입니다. ‘고통’을 갖는 것이 마냥 손해라고 생각했지만, 이러한 경험을 통해 우리는 고통을 마주하며 진정한 자신을 만날 수 있습니다.

#### 사랑이란 감정으로 하는 것이다

사랑이 만일 ‘감정’으로 하는 것이라면, 사랑을 억지로 하게 하는 자체가 억압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 대해 좋아하는 마음이 드는 것도, 싫어하는 마음이 드는 것도 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기에 누군가를 싫어하는 나의 모습을 보며 자신을 자책하는 것은 건강한 자존감을 지키는 데 어렵습니다. 반대로, 누군가가 당신을 좋아할 때도, 싫어할 때도 ‘그럴만한 이유가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며 너무 문제 삼지 않으면 좋습니다.

사랑은 감정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통해서 이뤄지는 것입니다.



장경철 교수  
서울여대 기독교학과

사랑을 훈련하고 싶다면,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이 나에게 10분 더 머물다 가도록 할 수 있을까?'에 초점을 맞춰 봅시다. 아마 이미 고민해보고 시도해보셨다면, 이것이 쉽지 않을 것임을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한마디 말을 통해 상대를 10분 더 있게 하는 건 어려워도, 10분 일찍 일어나게 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나의 말로 인해 얼굴이 붉어져 10분 일찍 떠나간 사람에게 '나는 그런 뜻으로 말을 한 것이아닌데, 내가 건넨 그 말이 상처가 되었구나'하는 고통이 느껴지기 시작하면 사랑이 시작된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상대의 고통을 나의 자아의 일부로 끌어들이며 그것을 품으며 그 고통을 느낀다면 그 감정은 사랑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대상이나 상대를 10분 더 머물도록 하기 위해 특별한 행위를 하기보다 상대방을 불편하게 하는 말, 습관, 표정 등을 하나씩 줄이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하루가, 한 달이, 한 계절이 변함에 따라 변하지 않을 것 같았던 관계가 변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너무나도 작은 것 같지만, 시간이 24번 왔을 때 하루가 되고, 하루가 30번 왔을 때 한 달이, 한 달이 3번 오면 한 계절이 오듯 사랑의 발전은 시간과 계절을 통해서 이루어짐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한 번에 하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시간을 통해서, 횟수를 통해서, 계절을 통해서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 2 건강한 자기 사랑이 자녀 사랑의 토대가 된다

우리는 왜 나의 가족, 친구, 이웃과 바른 관계를 맺지 못할까요? 부모님들은 왜 자기 자식들에게 더 엄할까요? 부모님들은 왜 자기 자녀들에게 말을 함부로 하게 될까요? 교회에서, 직장에서, 외부에서 나에게와는 다르게 다른 사람들에게 잘하는 부모님을, 배우자의 모습을 보며 섭섭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모습을 '가식적인 모습'으로 바라보다가보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원리를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은 바깥에서 만날 때, 낯선 사람과 만날 때 조금 더 조심하고 긴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부

에서 우리가 보았던 부모님과 배우자의 모습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집에서마저 조심하고 긴장한다면 그 사람은 신경쇠약에 걸려 단명할지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나의 조건과 환경을 보시고 나를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나의 허물 많은 모습, 나의 가식적이며 이중적 모습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나에게서, 상대에게서 나타나는, 저마다 '살아남기 위해' 하는 이러한 이중적인 모습에 대해 나를, 상대를 이해하고 사랑할 줄 알아야 합니다.



### 3 잘못된 접근을 줄이고, 올바른 접근을 익히자

#### 잘못된 접근이란 무엇인가?

잘못된 접근이란 우리의 행동이나 이야기를 통해 상대의 반응을 유도하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내가 경험한 것들로 상대방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접근이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태도, 자신을 자책하며 확대하는 모습 역시 잘못된 접근이 될 수 있습니다.

#### 그렇다면 올바른 접근이란?

잘못된 접근을 줄이기 위해서는 말을 잘 해서 설득시키려고 하지 말고 반응이 좋지 않은 말과 행동을 찾아내서 줄이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것입니다.



### 4 칭찬의 위력을 유통하자

칭찬의 가장 간편한 정의는 상대방이 잘한 것을 잘했다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생의 놀라운 괴리는 잘하고 있는 모든 사람이 칭찬받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특별히 잠언(31:28~31)에서는 칭찬에 대한 유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복한 가정은 사랑과 수고가 넘치는 가정보다 감사와 칭찬이 넘치는 가정일 것입니다. 칭찬은 우리를 행복하게 합니다. 그러나 잘하고 있는 모든 사람이 칭찬받지 못하는 이유는, 좋은 점과 나쁜 점이 함께 보이거나, 좋은 점보다 나쁜 점이 더 크게 보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는 나쁜 것을 너무 나쁘게 보지 않도록 훈련해야 합니다. 또한 잘한 것이 보이지 않고 잘못된 것만 보인다면, 앞으로 잘하게 될 것을 미리 알려주고 응원해주는 계시적 칭찬이 필요할 것입니다.

칭찬을 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잘못된 일을 불편하지 않게 깨닫게 하는 것은 더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우리는 자녀의(상대의) 잘못 앞에, ‘잘못’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도 잘못된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자녀와의 관계가 더욱 윤택해질 수 있도록 사랑이 듬뿍 담긴 칭찬, 계시적 칭찬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만남**

# 미디어선교를 통한 하나님 나라의 확장

## - 싱가포르 미디어미션스쿨을 마치고

제가 고등학교 입학 후 신앙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셨던 전도사님께서 싱가포르로 가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저의 첫 해외 선교지는 싱가포르라는 꿈을 품었습니다. 그리고 갓 스무 살이 된 올해, 저는 싱가포르에 미디어미션스쿨(MMS)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고등부 3년 내내 아빠처럼 저희를 챙겨주셨던 곽상진 선생님께서 지난 2월 고등학교를 막 졸업한 제게, “응답해라”하고 연락을 하셨습니다. 미디어선교팀에서 함께 봉사하자고 하셔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다양한 경험으로 좋은 기회가 될 거라 생각했지만 아직 대학교에 적응하기도 전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내가 과연 미디어선교팀에 맞는 능력을 가지고 있을까’ 고민도 컸습니다. 하지만 주변에서 좋은 도움 말씀을 주셨고, 덕분에 결심이 서서 미디어 선교부에 들어갔습니다.

첫 모임 주제는 MMS였습니다. MMS, 즉 미디어미션스쿨은 영락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님 사역지를 방문해 선교사님의 제자와 선교지 교회 교인 그리고 같이 협력하시는 선교사님들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교육해드리는 것입니다. 해외 경험도 선교 경험도 없던 저와 쌍둥이 오빠에게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았습니다. MMS 선교지는 싱가포르!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말해오던 일이 현실로 이어지며 눈앞에 펼쳐지는 일들이 마냥 신기하고 기대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우에인 성도  
선교부 미디어선교팀  
동대문·중앙교구

선교사님들께 파워포인트, 촬영, 영상편집프로그램을 알려드리기 위해 미리 각 프로그램들을 익혔습니다. 사실 평소에 자주 다루는 프로그램이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학교 과제와 시험에 더 집중하며 살았습니다. 첫 선교지만 긴장보다 기대가 더 컸고 선교준비보다 교육 후 개인일정에 더 신경을 썼습니다. 5월2일부터 4일까지 사흘 일정으로 첫 해외 선교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오전 수업과 오후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첫째 날은 윤장훈 목사님께서 사역하시는 싱가포르 한인교회에서 부교역자, 교회 성도님 그리고 가까이 바탐에 계시는 선교사님들과 함께 개회 예배로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첫 교육은 파워포인트와 촬영기법, 두 반으로 나누어 수업을 했습니다. 저는 파워포인트 수업에 참여해 보조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앞에서 진행하는 교육을 선교사님들이 잘 따라 가는지 확인하고 질문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과연 도움이 될지 고민과 걱정이 컸지만 선교사님들께 천천히 설명해드리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며 수업이 이어졌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선교사님들이 저희를 의지하시는 모습을 보고 감사하며 저희의 재능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는 생각에 뿌듯함이 컸습니다. 하지만 모르는 질문을 받았을 때는 준비되지 못한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 같아 반성도 했습니다. 그래서 미흡함을 보완하기 위해 제가 가져간 노트북으로 둘째 날 프로그램을 연습하며 기도로 준비했습니다.

둘째 날 미디어선교팀 팀원이 모여 경건회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이날도 영상편집프로그램 수업 보조 역할을 맡았습니다. 수업 중간에 뒤에서 폐회 예배 자막을 제작하고 있던 중 저를 찾아 주시는 선교사님을 보고 정말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육의 마지막 날인 셋째 날에는 싱가포르 최대 식물원인 보타닉 가든에서 야외 수업이 진행되었습니다. 선교사님들과 함께 사진 구도를 배웠습니다. 여러 번의 촬영으로 쉽게 감을 익힐 수 있었습니다.

스무 살이 되어 선교 목적으로 해외에 나갈 수 있었음에 감사드립니다. 선교사님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싱가포르로 갔지만 오히려 더 큰 배움을 받았습니다. 처음이라 걱정도 많았지만 가족처럼 챙겨주셨던 미디어 선교팀원들과 신앙의 버팀목인 전도사님까지 계셔서 작은 어려움조차 없이 무사히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만남**

## 기도할 때 지혜 주시는 하나님



박영희 권사  
서대문·은평교구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이고 감사인지, 저는 기쁘고 행복한 마음입니다. 이번 기도대각성 운동에 열심히 동참코자 기도제목을 꼭 써놓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20~30년 전, 구역장 권사님께서 저희 아이들 이름까지 기억하시는 것을 보고 저는 단순히 '참 머리가 좋으시구나' 생각했는데, 우리 가정을 위해서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셨기에 가능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구역장으로 섬기고 있는 저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었으며, 구역장으로서 기도하지 않은 죄를 하나님께 깊이 회개하고 이제는 구역 식구들의 이름을 한 명 한 명 불러가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도대각성 운동은 저에게 기도의 열심과 힘을 부여 주고 있습니다. 환우, 전도대상자, 위로할 분, 사랑부 등 기도제목을 놓고 기도하는데, 저는 이렇게 한 시간을 혼자

기도한 것이 처음이었고, 이 한 시간이 짧게 느껴진 것도 처음이었습니다. 여느 기도회 때와는 또 다른 은혜가 있었고 본당에서, 그리고 벨엘기도실에서 혼자 기도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 참으로 기쁘고 즐거웠습니다. 120일 기도대각성 운동 기간이 지나도 이 좋은 기도 습관을 이어가 겠노라, 단단히 마음먹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간증하는 이유는 저희 외삼촌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여느 때와 같이 본당에서 전도대상자 명단을 보며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는 올해 96세이신 큰외삼촌을 위해 기도하게 이끄셨고, 더 늦기 전에 외삼촌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전도의 마음'을 주셨습니다. 저희 큰외삼촌은 저희 외가의 기동과 같은 분으로 세상적으로 성공한 중견 그룹의 사업가이십니다. 큰외삼촌이라 하지만 자주 뵈지 못하고 가족 연중행사 때만, 1년에 한두



번 정도 뵈는 분이기엔 전도하려는 시도 자체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기도대각성 운동에 참여하면서 큰외삼촌을 위해 기도하니 ‘어색한 만남의 부담감’은 사라지고 ‘거룩한 만남의 사명감’이 생겼습니다.

지난 3월 뵈었을 때에 가까이 가서 손을 붙잡고, 그간의 수고하심과 모든 가족들을 잘살도록 키워 주심을 감사드리고, 또 학비와 엄마 병원비 주신 것 등 여러 가지 아주 세세한 것까지 생각나는 대로 감사의 마음을 진심으로 말씀드린 일이 있었습니다. 큰외삼촌 옆에 큰딸이 늘 함께하며 예수님을 전하는데 마음을 여시지 않아서 그 언니와 저는 큰외삼촌의 영혼 구원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교구 목사님을 모시고 심방 가서 예배드리며 예수님의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해드리면 얼마나 좋고 감사한 일일까 싶은 생각이 들어 그렇게 전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응답이 왔습니다. 언니로부터 ‘그 소식 들으시기로 했어!’라고 문자가 온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전도의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큰외삼촌께서 목사님께서 전해 주시는 말씀을 듣고 어눌하시지만 큰 목소리로 “아멘!”으로 화답하시며 복음을 받아들이셨습니다. 예배 마친 후 믿음이 약한 막내딸이 늦게 왔는데, 그때 이 막내딸이 큰외삼촌께서 예수님 믿기로 한 증인이 되도록 “나 예수님 믿고 너희 엄마 있는 천국 가기로 했다”고 말씀 하시지요” 했더니 아주 잘 들리는 소리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깜짝 놀란 막내딸 마음에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전해졌을 줄 믿습니다.

큰외삼촌은 예수님을 영접하신 후 바로 다음날 세례 받으셨고 입원하시어 쓸개 염증 치료를 위해 96세 고령에도 전신마취의 힘든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큰외삼촌이 전도의 사명인으로 쓰이기 위해 꼭 건강을 되찾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일주일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저의 간증 차례가 곧 될 것 같으니 내용을 적어보라 하셔서 아직

열이 있어 면회도 불가하고 집중치료 중이신데도 ‘수술 경과가 좋아서 완쾌되었습니다’ 하고 적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미리 적은 그대로, 함께 기도한 대로, 소망한 대로 다 이루어 주셔서 큰외삼촌께서는 건강을 회복하시고 지난 수요일 심방 예배도 드리며, 아멘으로 화답하셨습니다. 저는 큰외삼촌이 수술 전보다 더 좋은 건강으로 새 생명으로 거듭 나신 것을 확인하고 이 자리에서 간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도주일에 교회 출석은 못 했지만 영락 교회의 새 교우로 등록도 하셨습니다.

이제 큰외삼촌께서 예수님을 영접하심으로 해서 함께 구원받게 될 많은 영혼들이 떠올라 얼마나 기쁘는지 모릅니다. 이제 더 큰 기대와 소망을 품고 기도대각성 운동을 하려고 합니다. 외숙모님은 불교도였지만 병상에서 주님을 영접하시고 기독교 장례예식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전통제사를 하며 지금 이 은혜의 변화를 반기지 않는 외삼촌 남동생의 가정을 포함해 여러 친척 가정의 영혼들이 이 땅에서 누리는 세상의 복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온전히 구원받는 가족이 되기를 바라며, 현재 그 남동생이 경영하는 회사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을 따라 운영하여 세계만방에 구원의 빛으로 공헌하게 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남**



## 나를 새롭게 빛으시는 하나님



공형호 집사  
성동·광진교구



저는 모태신앙으로, 4대째 영락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6.25 전쟁으로 북에서 남으로 피란하신 조부모님과 부모님 밑에서, 1남 2녀의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어려운 가정환경임에도 장손이라는 이유만으로 전폭적인 지지와 사랑을 받으며 성장했습니다. 늘 성경책을 읽고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신 조모님과, 교회의 이곳저곳에서 봉사하시며 열심을 다해 신앙생활을 하신 어머니의 그늘 아래에서, 너무나 당연하게 주일성수와 찬양대를 섬기면서 교회 마당을 누비며 유년시절을 보냈습니다.

학업을 마치고 대기업에서 직장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외환위기 때도 남들이 모두 다니고 싶어 하는 직장에 이직해 열심을 다해 살았습니다. 그렇게 다니던 직장을 2년 전 퇴직했습니다. 앞만 보고 달려온 저 자신에게 재충전의 시간을 주었습니다. 긴 휴식 끝에 새로운 직장을 얻었는데 몇

개월 지나지 않아 '대기업 경력으로 갑질한다'는 아주 황당한 이유로 부당해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성실함을 큰 자부심으로 갖고 물 흐르듯 순탄하게 살아오던 저에게는 큰 충격이었고 자존심이 추락했습니다.

그렇게 다시 실업자의 길에 선 저는, 작년 4월부터 아내와 함께 딸 아이 어린이집 등원을 이유로 매일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부당해고를 당했다는 분하고 억울한 마음이 제 속에 여전히 큰 자리를 차지하며 저를 괴롭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존감이 추락한 저를 개인기도실과 새벽기도로 인도하셔서 그 마음을 토로하게 하셨습니다. 이전까지 저는 회사일이 우선이고, 시간이 나면 주일성수를 하는 선데이 크리스천의 대표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모태신앙으로 4대째 영락교회 교인으로 산다는 자부심만 제 속에 가득한

채, 제 안에 하나님은 안 계시고 김 아무개 권사 아들로 그저 열심히 직장생활에 충실한 저 자신만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실직으로 시간의 여유를 갖게 된 저를 교회로 출근시키시면서 매일 새롭게 빚어 주셨습니다. 말씀을 읽게 하였고, 서툴지만 읽은 말씀에 의지해 고백의 기도를 통해 회개케 하였고, 가정예배를 드리게 하셨으며, 아버지학교, 남성소그룹, 금요직장인예배, 2남선교 기도회까지 참여하게 하시어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씩 알아가게 이끌어 주셨습니다.

학창시절에는 수련회를 통해 뜨겁게 기도하며 성령의 충만함도 받으며 주님을 부르짖으며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어느새 형식적인 기독교인으로 전락해, 세상의 열심만 좇으며 사는 사람으로 변해 버렸습니다. 세상에서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로 얼룩져, 하나님께 나아올 수 없었습니다. 그런 저를 하나님께서는 불러 멈추게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셨던 길을 돌아보니, 그 길은 대기업의 이름이 내 이름이 되어버린 길이었고, 경제적 안정이 내가 이룬 것이며 그것이 참 안정이라 착각했던 길이었으며, 성실함과 책임감이 저의 사명인줄 알고 걸었던 길이었습니다. 그 길 위에 예수님의 이름과 발자취는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차마 저를 내버려 두실 수 없었기에, 퇴직과 부당해고라는 타이틀과 함께 주님께 걸어 오게 하셨던 것입니다. 저는 실직자이며 무능력한 가장입니다. 이런 상황 또한 견디지 못하고 용납조차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길에서 돌아보니, 주님 없이 걸어갔던 그 길은 절벽을 향해 내달렸던 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기도대각성 운동 전부터 저를 부르시고만 저 주시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저를 위해

더 깊은 기도생활과 기도훈련에 동참시키고자 기도대각성 운동을 시작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2월부터 더 깊은 영성을 위해 오늘까지 기도하며 주의 길 위에서 달리고 있습니다. 평생 기도제목을 놓고 기도해 본 적이 없는 저는 1볼트 기도카드에 10가지의 기도제목을 작성했습니다. 앞으로 응답 받아 지워질 기도제목도 있을 것이고, 새롭게 더해질 기도제목도 있을 것이며, 하늘나라 갈 때까지 해야 할 기도가 있을 것입니다. 응답되어 그 수가 줄어들기보다, 저는 기도제목이 점점 늘어나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음이 감사하고 행복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주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컸었는지, 평탄한 삶을 산 것이 그저 저의 행운에 불과했던 것이 아니라, 부모님의 끊임없는 기도와 하늘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깔아 주신 비단길이었던 것을 이제야 깨달아 고백합니다. 또 죄악과 교만으로 얼룩진 제 삶을 바로 잡아 주시는 이도 하나님임을 고백합니다.

저는 여전히 가장으로서, 경제적으로 불안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주님 뜻 안에서, 주님의 때에 아름답게 저와 우리 가정을 가꾸어 주실 것을 믿고 기대합니다. 또한 온전히 주님을 따르는 삶으로 변화되어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소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기도의 체질로 바뀌고 또 한 편의 하나님 이야기를 써가는 사람이 되도록 달려갈 것입니다.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고 따르는 삶으로 돌아오게 이끌고 계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의 삶도 내 영혼을 주께 부탁한다고 고백하신 예수님처럼 주님께 기꺼이 내어드리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가정이 되길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이 모든 고백을 할 수 있게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만남**

## 건강한 여름을 위한 영양섭취



권오란 권사  
중구·용산교구  
이화여대 식품영양학과

일상에서 매일 수없이 자문하고 고심하는 것이 “무엇을 먹지?”입니다.

우리가 오늘 먹은 것이 내일의 활력소가 되고, 그런 하루하루가 쌓여서 건강이 결정되기 때문이지요. 요즈음은 사시사철 때를 가리지 않고 먹을 것이 풍부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제철 과일과 채소는 땀이 많이 나면서 몸이 빨리 피곤해지는 더운 여름철에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비타민과 무기질뿐만 아니라 식물영양소가 많이 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식물영양소는 그 종류가 수없이 많지만, 빨강, 노랑, 초록, 보라, 그리고 하얀색 등 각각 고유의 색깔을 가지고 있어서 눈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색으로 보는 여름 과일/채소의 효능

#### ① 빨간색(수박, 토마토)

여름은 수박과 토마토의 품질과 가격이 가장 좋을 때입니다. 수박은 90%가 물이고 칼륨 함량도 높습니다. 땀을 많이 흘리는 여름철에 손실되는 수분을 보충하는 데 으뜸이지요. 수박의 빨간색은 라이코펜이 많기 때문이고, 다른 과일과 마찬가지로 비타민 C도 제공합니다. 토마토가

빨간색을 띠는 것 역시 라이코펜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이며, 이외에 베타카로틴, 비타민 C, 식이섬유를 제공합니다. 라이코펜, 비타민 C, 베타카로틴은 가장 잘 알려진 항산화 성분으로, 더운 여름 자외선에 노출될 때 피부를 보호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 ② 노란색(옥수수)

7월부터 9월까지가 옥수수 제철입니다. 옥수수는 더운 날씨로 입맛이 떨어지는 여름철의 대표 간식입니다. 옥수수의 노란색은 카로틴 때문이며, 특히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변비 예방 음식으로 좋습니다. 그러나 옥수수는 불완전한 단백질을 제공하므로 달걀, 우유 등과 함께 먹으면 더 좋습니다. 옥수





수를 삶을 때에는 옥수수가 물에 잠기지 않도록 바닥에 자작하게 붓고, 중간불로 물이 졸아들 때까지 찌는 것이 좋습니다. 제철 옥수수는 아무 것도 넣지 않아도 맛이 있습니다.

### ③ 초록색(오이)

오이 껍질과 씨앗에는 특별히 다양한 영양소가 있습니다. 따라서 전체를 먹는 것이 좋습니다. 오이에 들어 있는 리그닌은 항암 효과를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초여름에 수확한 오이는 소금물에 담가 오이지로 만들어 여름 나도록 먹다가 나중에는 이를 고추장과 된장에 박아서 장아찌로 만들어서 다음 해 새 오이가 수확될 때까지 밑반찬으로 먹어 왔습니다.

### ④ 보라색(가지)

생가지는 조금 쓴 맛이 있지만 삶거나 구우면 연해집니다. 가지 껍질의 짙은 보라색은 항산화 효과가 큰 안토시아닌과 클로로젠산 성분이 있기 때문이며,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가지는 비타민 K와 엽산의 풍부한 공급원이므로 젊은 여성들에게 좋습니다. 가지는 프라이

팬에 올리브 오일을 살짝 둘러 구워 먹고, 남은 것은 다음 날 샐러드에 사용해도 좋습니다.

### ⑤ 하얀색(흰콩)

우리가 먹는 식품 중에는 하얀색 식품이 가장 많습니다. 이 중 흰콩에는 이소플라본이라고 하는 여성 호르몬 작용을 하는 성분이 있어서 갱년기 여성들에게 특별히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서양 여성에 비해 동양 여성에게는 갱년기 증상이 훨씬 수월하게 지나가는데, 그 이유 중 하나가 흰콩 섭취량이 높아서입니다. 흰콩은 신진대사를 촉진해서 피로감을 없애 준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그러나 콩은 날것으로 먹으면 소화가 안 되므로 반드시 익혀 먹어야 합니다. 여름철에 즐겨 먹는 콩국수를 비롯해 두부, 된장, 콩나물은 모두 흰콩으로 만든 건강식품입니다.

### 그러나 이 점은 유의해 주세요!

하루에 다섯 번 과일과 채소를 꼭 챙겨 여름철 건강을 지키세요. 그러나 아무리 좋은 과일이라도 지나치게 많이 먹으면 나쁜 점도 있지요. 특히, 섭취 열량을 높일 수 있습니다. 한 번 먹을 때 중간 크기의 과일이라면 한 개, 작은 과일이라면 반 컵, 마른 과일은 4분의 1컵, 갈아 만든 과일주스라면 반 컵 정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한 가지 과일이나 채소에 집착하지 마세요. 색깔로 다양하게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바구니와 밥상에 무지개를 띄운다 생각하고 준비해 주세요. 음식의 색을 통해서도 우리의 건강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만남**



## 기도의 힘으로 성장합니다

구역의 노 권사님으로부터 전화가 걸려 왔습니다.

“집사님, 우리 애들 위해 기도해 주세요.” 무슨 영문인지 모르지만 권사님께 걱정 마시라고 안정을 시켜 드린 뒤에야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우시며 아들 내외의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말씀해 주시지 못하는 더 많은 사연이 있는 듯했지만 모든 이야기를 듣지 않아도 권사님께서서는 구역에서 빠져나가려 하는 아들 내외가 교회를 안 나가게 될까 봐 그리고 믿음을 잃어버리게 될까 봐 걱정이 되신 듯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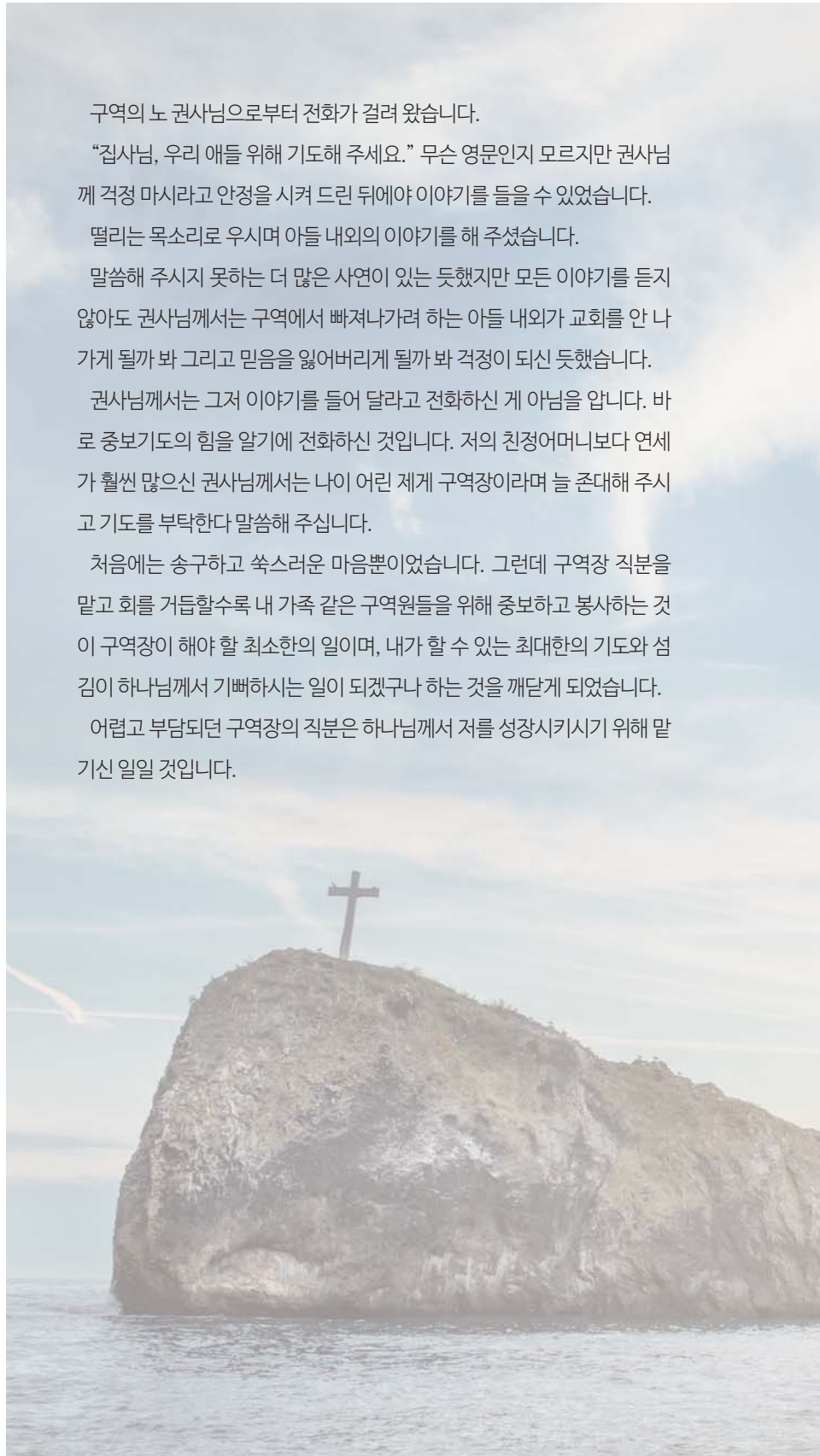
권사님께서서는 그저 이야기를 들어 달라고 전화하신 게 아님을 압니다. 바로 중보기도의 힘을 알기에 전화하신 것입니다. 저의 친정어머니보다 연세가 훨씬 많으신 권사님께서서는 나이 어린 제게 구역장이라며 늘 존대해 주시고 기도를 부탁한다 말씀해 주십니다.

처음에는 송구하고 쑥스러운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구역장 직분을 맡고 회를 거듭할수록 내 가족 같은 구역원들을 위해 중보하고 봉사하는 것이 구역장이 해야 할 최소한의 일이며,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기도와 섬김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되겠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렵고 부담되던 구역장의 직분은 하나님께서 저를 성장시키시기 위해 맡기신 일일 것입니다.



한선희 집사  
안양·수원교구 26구역장



저희 구역엔 은퇴 권사님 세 분과 시무 권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권사님들께서는 늘 새벽예배를 통해 나라와 교회를 위해 그리고 구역 식구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권사님들의 기도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예전 구역장님들의 섬김과 봉사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구역 일은 정말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 넓은 구역을 걸어서 다니며 예배드리고 구역원들에게 힘든 일이 없나 돌아보고 어려운 분에게 사비로 보탬이 되어 드렸다는 이야기를 부모님을 통해서 여러 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 섬김과 기도가 있었기에 지금까지 영락교회가 든든히 세워질 수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구역 식구는 말 그대로 식구 같은 지체입니다.

부모님을 위한 기도, 자녀를 위한 기도, 건강 문제의 기도, 사업 문제의 기도, 마음이 어려울 때 기도, 기쁜 일이 있을 때 기도... 여러 기도 제목을 나누며 중보할 때 서로의 마음을 나누고 슬픔과 기쁨을 공유하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하나가 된 식구들입니다.

독거노인 세대가 있는 다른 교구 구역의 구역장님께서 혼자 사시는 노인 분을 위해 종종 찾아가 반찬을 만들어 드리고 집 청소까지 하고 오신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시는 구역장님들의 헌신은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어쩔 줄 몰라 했던 미련한 제게 따가운 일침을 주었습니다.

좋은 소식이 들리면 가족같이 함께 기뻐해 주고 슬픈 일이 생기면 함께 울어주고 기도가 응답 받았을 때

감사로, 응답되지 못하면 위로와 권면으로 영락의 본이 되시는 구역장님들의 간증을 들을 때마다 저를 돌아보고 반성하게 됩니다.

40대 초반에 구역장을 맡게 되면서 큰 부담감을 느꼈고, 저보다 연세가 훨씬 많은 어르신들과 무엇을 나누어야 하는지 갈 길을 잘 몰랐습니다.

그랬던 제게 구역 권사님들께서는 존대해 주시고 아무것도 못하는 제게 잘한다고 늘 칭찬과 격려를 해주셨기에 늦게라도 조금씩 마음이 열리게 되었고, 지금은 구역 식구들이 믿음의 선배님이요 기도하는 어머니요 동역자이기에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기쁨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자녀 학교 문제로 잠시 타 지역에 나와 있어 제대로 권사님들을 돌아보지 못하는 상황이라 늘 무겁고 죄송한 마음뿐이지만 권사님들의 기도의 힘이 느껴지고 저 또한 권사님들과 구역 식구들을 위한 기도를 멈출 수 없습니다. 최근 저희 구역은 교통사고로 병원에 계시는 권사님과 그 가정, 세 자녀와 함께 해외로 선교를 떠난 권사님 따님 가정의 사역과 자녀들, 연세가 많으신 권사님의 건강과 가정, 초기 치매를 앓고 계시는 은퇴안수집사님의 건강을 위한 기도제목이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 구역은 믿음의 선배님들의 기도로 성장하고 그와 함께 저도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 잘 물려받아 저를 통해 흘려보내고 또 다른 열매가 맺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며 뒤늦게 알아가는 철없는 구역장을 지금까지 다독여 주신 권사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만남**

## 꿈과 신앙을 심어주는 교사



할렐루야!

부족한 제가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헌신하시는 교회학교 선생님들과 성도님들 앞에 간증자로 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게 하심으로, 신앙이 더 깊어지는 기회가 되었고, 믿음으로 감사하며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저는 20대에는 소년부 교사로, 결혼 후에는 유아부 교사로, 지금은 유아2부 부감으로 교회학교에서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만나는 큰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평안도에서 피란 오신 할머니의 손에 이끌려 어린 시절부터 영락교회에 출석했습니다. 그 시절의 교회학교는 저에게 신앙의 울타리이자 버팀목이었습니다. 아동부부터 고등부까지 찬양대로 섬기면서 불렀던 찬양과 다양한 신앙의 경험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아정체성 형성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 시절을 회상해 보면 믿음의 본을 보이셨던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계셨고, 함께했던 교회학교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생각만으로도 마음이 따뜻해지고 평안해지는 저를 발견하곤 합니다. 이렇게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할머니, 부모님, 교회학교 선생님의 사랑과 기도로 믿음 안에서 자랐고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을 받아 왔습니다. 교회학교의 시간



김동은 권사  
강북·도봉교구  
유아2부 부감



들은 그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신앙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믿음 안에서 자란 저는 현재 유아부를 섬기고 있습니다. 유아부는 아이들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부모님과 떨어져 예배를 드리게 되는 부서입니다. 매년 1월 첫째 주, 유아부에 처음 오는 아이들의 표정은 한결 같습니다. ‘여기는 어디인가? 나는 누구인가?’ 낯설고 두려워하는 표정이 역력합니다. 부모님들도 아이가 잘할 수 있을까 하는 불안한 표정과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선생님께 아이의 손을 넘기십니다. 아이들은 울음을 터뜨리기도 하고, 선생님 손을 잡고 마음을 가라앉히기도 합니다.

놀랍고 은혜롭게도 아이들의 울음소리는 한 주, 한 달이 지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로 바뀝니다. 그 과정 속에는 은혜로운 경험들이 많이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의 발달 이론도 육아의 많은 경험도 중요하겠지만, 우는 아이를 꼭 끌어안고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 속에 변화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보통 아이들과 조금 다른 친구가 있었습니다. 선생님과 눈도 마주치지 못했고, 다른 곳만 바라보며,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잠시도 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지 않았고, 예배당 여기저기를 계속 뛰어다니며, 불안함을 표현했지요. 전도사님과 담임선생님, 유아부 선생님과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었습니다. 그 친구가 유아부뿐만 아니라, 속한 모든 곳에서 적응하며 잘 지낼 수 있고 사랑받고 쓰임 받는 자녀가 될 수 있기를 기도했습니다. 5~6개월이 지난 뒤 우리의 염려가 무안하리만치 모든 걱정스러운 상황이 사라졌습니다. 세상적인 선부른 판단은 회개의 제목이었습니다. 우리 친구는 온전한 예배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유아부 친구들이 고사리 같은 손으로 울동을 따라하며, 두 눈을 꼬옥 감고 기도하고, 정확한 발음이 안 되는 언어 구사력으로 성경 구절을 암송하고, 목청껏 찬양하는 모습

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린이와 같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께 기뻐하며 드리는 예배자의 모습이 바로 우리 유아부 친구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모습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유아부를 섬기는 전도사님, 선생님들과 함께하시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습니다. 직장과 학업, 가정에서 맡은 소임을 다하다 주일 아침 유아부 친구들 한 명 한 명을 안아 주는 이들의 모습에서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매년 하늘나라 꽃들의 잔치, 여름성경 학교 등을 위해 몇 달간 함께 눈물과 기도로 헌신하시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합니다.

특별히 이번 기도대각성 운동을 통해 다시 한번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하늘나라 꽃들의 잔치를 준비하며 부족한 손길과 다양한 기도제목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채우셨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수많은 아이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고, 가정이 더불어 기뻐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말씀과 기도가 부족했던 저의 삶을 돌아보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제가 받은 우리 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면서, 기쁨과 감사로 교회학교 교사로서의 사명을 다하겠다는 깊은 다짐을 합니다. 생명을 낳아 기르는 교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저를 포함한 교사들과 다음세대를 위해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남**

## 탁구로 영락 성도들이 교제합니다!

영탁스 출범(매주 월요일 오후 6-9시)



영락 탁구클럽 스포츠 선교회인 '영탁스' 출범식이 지난 5월 29일 제2식당에서 김운성 목사님과 교회 관계자들 그리고 영탁스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김운성 목사님의 기도와 격려사에 이은 시타를 시작으로 창립회장을 맡은 김일동 은퇴 안수집사의 랠리가 이어졌습니다. 이날 발족식은 세대를 뛰어넘어 많은 성도가 탁구라는 스포츠를 통해 친교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쁨의 자리였습니다.

영탁스는 2016년 영락교회 성도로서 탁구를 사랑하며 함께 친교를 나누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여 시작했습니다. 교회 모임으로 발족하기까지 지난 3년간 40여 명의 회원이 매월 1, 2, 4주 월

요일 저녁에 영락중학교에서 모여 운동하며 친교를 나누었습니다. 이제부터는 교회 안에서 운동하게 되었으므로 더 많은 교우가 참여할 수 있게 되어 영탁스 전 회원들은 정말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영탁스는 새문안교회, 영락농인교회를 비롯한 서울 시내 여러 교회와 탁구를 통한 친선 교류전을 가지기도 하였습니다. 정식 교회 모임으로 발족하기까지 많은 분의 관심과 도움이 있었습니다. 지면을 통해 교회 내 체육발전위원회 신설과 장소 및 비품 등을 아낌없이 후원해주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제공 박흥기 집사(고양·파주교구)

영탁스에는 탁구채와 공 등 모든 것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성도님들은 몸만 오셔서 즐길 수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선교관 지하 제2식당으로 오십시오. 환영합니다!!

※ 문의: 영탁스 총무 김태영 안수집사(010-4912-4740)



# 最も貴いもの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제37회

**호산나 찬양대 순회연주**

일본 도쿄, 요코하마, 오미다마

2019. 07. 04 (목) - 08 (월)

흥고다이 교회 주최

05일 (금) 18:30 요코하마시 구민문화센터 플라자홀

오미다마시 채플 주최

06일 (토) 14:00 오미다마시 사계 문화관 숲의 홀

야마토 갈보리 채플 주최

07일 (일) 09:00 야마토 갈보리 채플 교회당

사찌가오카 교회 주최

18:30 요코하마시 구민센터 썬하트홀

주최 : 영락교회 음악부

주관 : 호산나 찬양대

출연 : 호산나 찬양대

호산나 오케스트라

지휘 : 장세완

반주 : 전은배

## 사랑을 선택하라

### 스토미 오마티언

저자는 찬양 사역으로 많은 크리스천에게 영향을 미쳤으며 지금은 기독교 작가로 널리 알려져 있다. 그는 전기, 수돗물도 없는 와이오밍의 한 시골 목장에서 성장했다. 병적으로 충동적이며 알코올 의존, 정신질환을 앓던 친엄마에게서 어린 시절 영문도 모른 학대 (언어폭력, 육체적 구타, 지하실에 갇힘)를 통해 불안정, 어두움, 고립, 두려움, 걱정, 희망 없음, 무기력을 경험하며 성장했다. 아버지는 성실하고 온화했으나 교회를 싫어했고, 벌목장 작업으로 많은 시간을 가정으로부터 떨어져 있었다. 스토미는 대학에서 음악을 전공했고, 가수이자 배우로 많은 방송프로그램에 출연했지만, 화려한 생활 이면에는



정하진 장로  
성동·광진교구



- 스토미 오마티언 저, 안정임 역(더드림, 2015)

내색할 수 없는 상처로 방향했다. 사랑받지 못함과 반복된 학대를 겪었던 충격과 심리적 상처에서 벗어나려고 사ibi종교, 주술행위에 빠지기도 했고, 마약, 알코올 문제에 이어 자살시도까지 하게 된다.

하지만 그는 동료 가수의 소개로 목사님을 소개받고 “이전에 한 번도 들어 본 적 없는 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듣게 된다. 온갖 시도에도 별다른 해결과 대안이 없으니 한번 들어나 보자는 자포자기 심정으로 복음을 받아들였다. 주님을 영접한 후에도 여전히 어려움을 겪던 그는 남편 마이클 오마티언을 만난 뒤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참사랑을 깨닫게 되고 변화하게 되었다”고 고백한다. 그는 기도와 신앙에 관련된 책을 60권 이상 펴냈고, 전 세계에 3200만 부가 팔린 초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어 복음을 전하고 있다.



## 인생 여정을 변화시키는 세 가지 선택

### 첫 번째 선택

“당신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기로 선택하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은 우리의 자유의지에 따른 선택에 달려있다고 오마티언은 말한다. “영적인 삶은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인식으로부터의 첫걸음을 시작한다(p10).” 하나님의 본질은 사랑이며 예수님을 통해서만 완벽한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일 수 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의 러브레터인 성경을 읽고, 은혜와 자비로 주시는 하나님이 사랑을 인식하고, 의지적으로 선택해야 비로소 인생 여정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득할 수 있게 된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이해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품성과 권능이 “내 안에 쏙 들어와야” 비로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데까지 이르게 된다. 이를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머리로만 이해하지 말고 마음을 열어서 받아들여야 한다(p17).” 인생 여정에서 하나님의 길과 방법을 선택하는 것도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항상 해야 한다(p333).

### 두 번째 선택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기를 선택하라.”

그는 “하나님의 사랑에 부응하려면 사랑을 표현하기로 걱정해야 한다(p18)”고 말한다. “하나님께 사랑을 표현하는 대표적인 방법은 기도하기, 성경 읽기, 찬양

과 경배와 예배를 드리기이다. 하나님의 러브레터인 성경을 읽는 것은 지식을 쌓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를 알기 위함이다(p170).” 우리는 자신의 지혜를 먼저 내세우지 말고 “하나님의 지혜에 열정적으로 기대야(p211)”하는데, “우리 안에 악을 허용하면 하나님의 원수를 허용하는 꼴이 된다. 어떤 식으로든 원수에게 생각과 삶의 문을 열어주지 말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은 어떤 것에서도 완전히 떠나기를 간구해야 한다(p222).” “매사에 결정을 내릴 때는 하나님의 뜻을 지레짐작하지 말고 구체적인 인도하심을 간구함으로 하나님께 사랑을 표현해야 한다(p241)”

### 세 번째 선택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를 선택하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으로 하라.”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사랑 표현은 바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다(p256).” 그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낼수록 우리 자신이 더욱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될 수 있다(p262)”며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가장 우선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은 그들을 위해 중보기도하는 것(p263).”이라고 권한다. 그는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란 불가능하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졌을 때만 가능하며 날마다 인도하시는 성령의 도움이 없으면 불가능 한 일(p258)”이라고 말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영적으로 거듭났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졌을 때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p260).”는 것이다.

“영적인 삶은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인식으로부터의 첫걸음을 시작한다(p10).”

하나님의 본질은 사랑이며 예수님을 통해서만 완벽한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일 수 있다.

- 「사랑을 선택하라」에서

오마티언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겸손과 감사함으로  
마음의 소원을 아뢰고 그분이 우리에게 대해 최선을 안다고  
믿고 신뢰하는 것이 사랑의 표징”이라고 설명한다. “우  
리 뜻대로 응답하지 않으신다고 하나님의 비난하는 것은  
결코 그분을 사랑하는 태도가 아니(p275)”라는 것이다.

### 주님은 의로움과 완벽한 사랑이라는 렌즈를 통해 우리를 보신다

이 책을 읽으며 “우리가 자신의 확대경을 통해 우리의  
결점, 죄와 실패에 놀라 낙담(p19)”한다는 저자의 말에  
공감했다. 하지만 주님은 “의로움과 완벽한 사랑이라는  
렌즈를 통해 우리를 바라보신다(p19).” 저자는 신앙 여  
정의 소소한 것에서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표  
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법으로 다른 사람 사랑하기  
를 생활에 투영하라고 권면한다. 자의적으로 “하나님을  
우리 자신의 형상으로 만들려 하지 말라. 우리가 그분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p40)”는 말에도 울림이 있다.

저자는 묻는다.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을 이해하는가?  
우리는 아낌없이 하나님을 예배하는가? 우리의 사랑을  
보여주고, 표현하고, 시범하고 실천하는가? 매 순간 하  
나님과 양방향 의사소통을 하는가?”

어떤 상황에서든 나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 관점에서 하  
나님 사랑을 받아들이기로 “선택”해야 한다. 그렇게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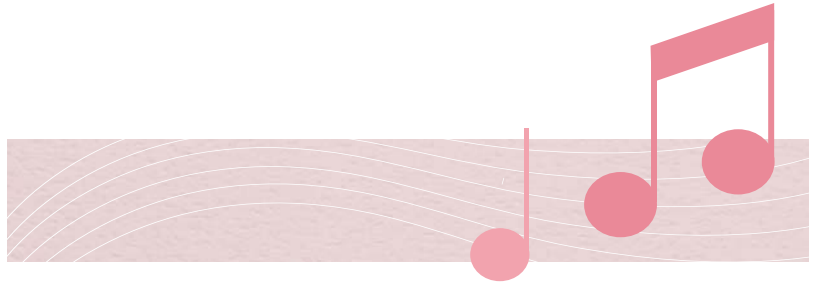
으로 우리는 위대한 깔때기(Great Funnel)가 되어, 위  
로부터 부어주시는 사랑, 희락, 화평을 쉼 없이 “나” “자  
신” “안”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저자는 이렇게 도전한다. “의심하지 말고 변함없이 지  
속적으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단생각 없이 하나님  
을 사랑하라. 얇은 물가에 발가락만 담그지 말고 하나님  
의 사랑의 깊은 바닷속으로 풍덩 뛰어들라. 하나님에 대  
한 사랑이 커질수록 자아 관념이 바뀌어서 하나님이 보시  
는 눈으로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된다 (p152).” 우리 사  
랑이 불완전해지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사랑에 뿌리를 내  
려야 한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면 우리 사랑도 성  
숙할 수 있다. 날마다 기도와 경배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을 구해야 한다.

저자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과 솔직한 자세로 매 순  
간 기도하기를 제안한다. “하나님, 당신을 섬기고 싶습니  
다.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매일 저를  
만드신 대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고 싶습니다. 매일 그렇게 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매  
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게 해 주옵소서. 아멘” **만남**

## 지금까지 지내온 것(찬송가 301장)

- 작사 사사오 데쓰사부로(笹尾鉄三郎, 1868~1914) 작곡 박재훈(1922~)



이 찬송은 일본 동양선교회 초창기 지도자였던 사사오 데쓰사부로(笹尾鉄三郎)가 작사한 곡으로 데쓰사부로(笹尾鉄三郎)는 일본 홀리니스 교단의 목사였다. 무역업자로 성공을 꿈꾸며 미국으로 갔던 그는 미국에서 예수를 영접하게 되고 하나님을 위해 일생을 헌신했는데 고국으로 귀국을 한 후에는 1901년 일본 동양선교회 성서학원 교수가 되었다.

작곡자인 박재훈 목사님은 한국 교회음악의 살아있는 역사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97세가 된 지금까지도 우리나라 교회음악에 많은 업적을 남기고 있다. 한국 교회 1호 지휘자라 할 수 있는 박재훈 목사는 1942년 오르간 연주자로 평양에서 데뷔한 후 1950년 한국전쟁 때는 '한국교회음악협회' 설립을 위한 발기인으로 참여했다. 1953년 한국전쟁 휴전 이후 서울에서 초등교사와 중등교사로 지내며 유명한 동요(송이송이 눈꽃송이, 펄펄 눈이 옵니다, 산골짜기에 다람쥐, 구슬비, 시냇물, 여름성경학교 교가, 어머니의 은혜 외)를 작곡했는데, 그가 작곡한 동요와 성가곡(주는 저 산 밑의 백합, 내 언제나 주님을 찬미하리니,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라 외)은 무려 1,500여 곡에 달한다.



박신화 장로  
마포·영등포교구  
갈보리찬양대 지휘자

영락교회 찬양대 지휘자와 사무장로, 한양대 음대 교수를 지내고 60세에 목사 안수를 받은 그는 1973년 미국을 거쳐, 77년 캐나다로 이주해 토론토 큰빛장로교회를 개척했으며 지금까지도 원로목회자이자 현역 작곡가로서 활동하고 있다. 그의 주요작품으로는 제6회 대한민국 오페라대상에서 창작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한 오페라 '손양원'을 비롯해서 오페라 '에스터', 칸타타 '뿌리, 온 땅에 편안하리' 등이 있으며, 2013년에 시작해 6년의 창작 기간이 걸린 오페라 '함성 1919'를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금년 3월에 발표했다.

### 찬송가에 한국인 작곡가로는 최다 곡 수록

박재훈 목사가 작곡한 찬송은 현재 9곡이 우리 찬송가에 실려 있다(17, 301, 319, 392, 515, 527, 561, 578, 592장). 그중에서도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에 대해 박재훈 목사는 2002년에 발간한 자신의 회고록적인 책 『내 마음 작은 갈릴리』를 통해 설명하기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매일 매일의 십자가를 지고 주의 모습을 이 땅에서 닮아간다고 하는 것은 제 힘으로는 결코 안 되는 것이다. 1절에서 ‘자나 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피주시고’라는 구절처럼 주의 은혜의 손길이 나를 잡아주실 때에만 우리는 그 길을 걸을 수 있게 된다. 2절은 아무것도 아닌 한 줌의 흙덩이 같은 나일지라도 매일 물 붓듯이 부어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힘입음으로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겠다는 고백을 담고 있다. 3절은 그 사랑과 그 은혜에 대한 믿음, 영원한 주의 나라를 향한 큰 소망 중에 주께서 예비해 주신 집에 들어가 주님 모시고 영원히 사는 날을 향해 걸어가는 기쁨을 찬미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 하나님이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찬양이란

필자도 이 찬송을 많이 불렀지만 이 찬송을 부르면 생각나는 잊지 못할 회개의 순간이 있다. 1980년 5.18을 전후해 우리나라는 큰 혼란에 빠져있었다. 필자는 당시 연세대 음대 4학년이었는데, 1979년 10월 박정희 대통령 서거 이후 불어왔던 민주화 운동으로 대학마다 학도호국단이 폐지되고 학생회가 출범했으며 필자는 그때 연세대 음대 초대 학생회장을 맡고 있었다. 그러나 민주화운동을 했다는 이유로 경찰을 피해 강원도로 피신을 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 놓이게 됐다. 마침 외삼촌이 흥천군 서면 팔봉리라는 벽촌의 작은 초등학교에서 근무를 하시던 터라 그 근처에서 한 달 이상 기거했던 적이 있다. 지금은 근처에 스키장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작곡자인 박재훈 목사

이 생겨 길이 잘 닦여 있지만 당시는 버스도 잘 안 들어가는 벽지 중의 벽지였다.

그곳에 팔봉교회(장로교 통합)라는 작은 교회가 있었는데 마침 외삼촌이 거기서 풍금 반주를 맡고 계셔서 나는 어느 날 그 교회의 수요일예배에 참석하게 됐다. 그날 ‘지금까지 지내온 것’ 찬송을 함께 불렀는데 수요일예배에 모인 7~8명의 할머니 교인들 중 그 노래를 곡조에 맞게 부르는 분은 한 명도 없었다. 우습기도 하여 그 분들이 부르는 찬송가를 어깨 넘어 보았더니 전부 큰 글씨로 가사만 세로로 쓰인 옛날 찬송가였다, 나는 미소를 지으며 큰소리로 마치 목소리를 자랑이라도 하듯 노래했다. 그러던 중 2절을 부르는데, 한 할머니의 얼굴에 흘러내리는 눈물을 보았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의 가사만을 생각하며 흘리는 눈물이었다. 그때 나는 교만했던 내 자신이 너무도 부끄러웠다. 이 분들에게 찬송가 곡조가 틀리는 것이 무엇이 문제란 말인가?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으로 고백을 드리는 모습이 하나님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찬양이란 것을 깨달은 잊지 못할 순간이었다.





(통 460)  
T. Santos, 1897

## 지금까지 지내온 것 301

어로파제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교  
(상장 7:12)

크신 은혜: 8,7,8,7,D.  
박재훈, 1967

보통으로 ♩ 92

1. 지금 까 지 내 온 것 의 크 신은 헤 라  
2. 물도 말 도 연 악 나 주 새 반 아 왔 네  
3. 주 님 다 시 비 을 날 이 로 반 로 다 가 와

한 이 없 는 주 의 사 랑 어 켜 이 루 말 하 라  
물 불 거 는 집 으 게 마 셔 벗 을 은 날 도 열 하 다  
나 깨 나 주 의 손 이 항 상 살 췌 시 고  
사 없 는 거 리 에 비 하 신 고 향 산 집 에 땀 땀 가  
나 위 해 에 미 하 신 고 향 산 집 에 땀 땀 가

모 든 일 을 주 안 에 서 행 동 하 게 하 시  
주 의 손 을 주 안 에 서 행 동 하 게 하 시  
아 버 지 의 주 안 에 서 행 동 하 게 하 시  
아 버 지 의 주 안 에 서 행 동 하 게 하 시

은혜와 사랑

이 찬송에 대해 좀 더 자세한 설명을 하자면, ‘지금까지 지내온 것’ 찬송의 좌측 상단에는 작사가의 이름과 작시연도가 있고, 우측 상단을 보면 301장 아래 ‘크신 은혜 8,7,8,7,D.’ 라고 쓰여 있다. ‘크신 은혜’는 이 찬송 곡조의 이름이며 숫자는 운율을 뜻한다. 여기서의 D는 Double의 약자로 운율 8,7,8,7을 두 번 하라는 뜻이다. 그리고 작곡자의 이름과 작곡연도가 있다. 이 찬송은 1967년 작곡되어 개편찬송가에 최초로 실렸다.

클래식음악에는 ‘콘트라팍툼(Contrafactum)’이란 것이 있다. 기존 선율에 가사만 바꾸어 부르는 기법인데, 찬송가에 특히 콘트라팍툼이 많이 보인다. 예를 들어 ‘지금까지 지내온 것’(301)은 ‘복에 근원 강림하사’(28), ‘눈을

들어산을 보니’(383)와 운율(8,7,8,7D)이 같아 ‘지금까지 지내온 것’ 선율에 여기에 맞는 어느 가사를 붙여도 노래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진다. 이런 예는 다른 찬송에도 나타나는데, 가장 흔한 예는 494장 ‘만세반석 열리니’(곡조: TOPLADY)로서 7,7,7,7,7,7의 운율이다. 이 운율은 찬송 ‘고요히 머리 숙여’(62), ‘나는 갈길 모르니’(375), ‘겻세마네 동산에’(457), ‘인류는 하나 되게’(475)와 같은 운율이어서 어느 곡조에 맞추어 불러도 무방하다. 찬송가 뒤편에 운율색인이란 것을 찾으면 찬송의 콘트라팍툼을 쉽게 찾을 수 있다. 이것은 찬송에 더욱 쉽게 접근하기 위한 것으로서 전혀 잘못된 것이 아님을 밝혀둔다. **만남**

## 바돌로매, (아마도) 진실을 피하지 않은 사람



바돌로매에 대한 정보는 많지 않다. 우선, 그리고 이름 자체의 뜻은 ‘달매(Talmay)의 아들(bar)’ 정도가 될 것 같다. 그리고 성경에서 이 이름은 공관복음(마 10:3; 막 3:18; 눅 6:14)과 사도행전(1:13)에 한 번씩 사도의 목록에 등장한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그 이름이 공관복음에서는 빌립 바로 다음에 보인다. 이것이 전부다.

그런데 바돌로매에 대한 성서적 정보를 넓힐 수 있는 길이 한 가지 있다. 추측성이 짙은 것이지만 말이다. 사람들은 공관복음과 사도행전에만 등장하는 바돌로매와 요한복음에만 등장하는 나다나엘이 동일인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게 되었는데,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우선, 두 이름은 ‘상보적 분포’를 보인다. 쉽게 말하자면, 한 이름이 보이는 곳에 다른 이름이 보이지 않는다. 다음, 이미 언급했듯이 두 이름 모두 빌립과 함께 등장한다. 특히 마태복음을 보면 열두 제자의 이름을 열거할 때 ‘와/과’로 둘씩 묶는데, “빌립과 바돌로매”도 그 중 하나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에는 나다나엘이 빌립과 함께 등장한다. 빌립이 예수를 만나 그가 구약에 예언된 “그 분”이라는 것을 깨달은 다음, 그것을 맨 먼저 알린 사람이 나다나엘이었다. 이러한 이유로 바돌로매를 나다나엘과 동일인으로 여기는 경향이 생겼다. 이에 대한 명시적인 증거가 없으니,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그런데 추측이기는 하지만 (그래서 제목에 ‘아마도’를 넣었다), 바돌로매가 나다나엘이라면 우리는 요한복음 1장을 통해 그가 다음과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우선, 그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46절)는 편견을 가졌다. 그렇지만 그는, 예수께서도 밝히셨듯이, “속에 간사한 것이 없는 사람”(47절)이었다. 편견은 성장의 과정에서 누구에게 생길 수 있지만, 간사한 것(dolos), 즉 ‘속임’ 또는 ‘거짓’이 없는 사람은 옆에서 누군가가 진실을 보도록 도와주면 편견을 극복할 수 있다. 진실(또는 진리)을 피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는 빌립의 도움으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자 “이스라엘의 왕”(요 1:)임을 알게 되었다.

전승에 의하면, 바돌로매는 여러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아르메니아에서 순교를 당했는데, 그 방법이 끔찍했다. 먼저 산 채로 살가죽을 벗긴 다음 목을 벤 것이다. 진리를 발견한 그는 진리이신 예수께서 먼저 그렇게 하셨듯이 그 진리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목숨으로 대가를 지불했다. 기독교는 그런 이들의 터 위에 세워졌다. **만남**

# 7월의 상영작

▶ 상영 장소 및 시간 : 50주년기념관 지하1층 소강당, 주일 오후3시



## 소울 서퍼 (Soul Surfer, 2011)

7일



감독 : 손 맥나마라

주연 : 안나소피아 롬, 데니스 퀘이드, 헬렌 헌트

상영시간 : 1시간 46분 등급 : 전체 관람가

하와이 카우아이에서 태어난 베서니는 서핑을 즐기는 부모의 영향으로 걸음마보다 서핑을 먼저 배우며, 13살에 하와이 주 결선 서핑대회에 출전하여 1위로 예선을 통과한다. 어느 날 서핑 중, 상어의 공격으로 한쪽 팔을 잃는 사고를 당하여 구사일생으로 살아남는다. 가족과 친구들의 사랑의 힘으로 다시 서핑을 시작하지만 파도를 이기지 못하고 포기하고 좌절했던 베서니는 태국 쓰나미 현장의 봉사 활동에 참여하여 많은 것을 깨닫는다. 다시 서핑을 시작하여 주의 결선 대회 참가를 위해 다시 파도에 몸을 싣는데...



(상) 14일

(하) 21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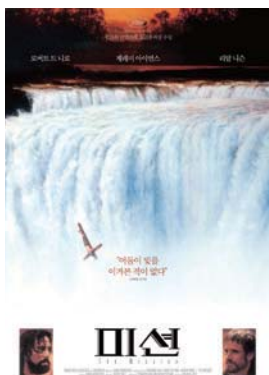
## 쉘들러 리스트 (Schindler's List, 1993)

감독 : 스티븐 스필버그

주연 : 리암 니슨

상영시간 : 3시간 16분 등급 : 15세이상관람가

1939년, 독일에게 점령당한 폴란드의 한 도시. 독일인 사업가이자 냉정한 기회주의자인 오스카 쉘들러는 유대인이 경영하는 그릇 공장 인수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아끼지 않는다. 인건비 없이 수백명의 유대인을 고용한 오스카 쉘들러는 우연히 유대인 회계사인 스텐과 가까워지고, 나치에 의해 참혹하게 학살되는 유대인들의 참혹한 실상을 마주하게 된다. 서서히 그의 양심이 흔들리기 시작하고, 마침내 강제 노동 수용소로부터 유대인들을 구하기로 결심한다. 그렇게 그는 자신이 구해낸 유대인 명단이 적힌 쉘들러 리스트를 만드는데...



## 미션 (The Mission, 1986)

28일



감독 : 롤랑 조페

주연 : 로버트 드 니로, 제레미 아이언스

상영시간 : 2시간 5분 등급 : 12세이상관람가

1750년, 남미의 오지로 선교활동을 떠난 가브리엘 신부 일행은 신비로운 폭포 절벽 꼭대기에 사는 원주민 과라니족 마을에 교회를 세우고 이들과 교감한다.

한편, 동생을 우발적으로 살해하고, 죄책감과 절망에 빠진 악랄한 노예상 멘도자에게 가브리엘신부는 함께 원주민 마을로 선교활동을 떠날 것을 권한다. 멘도자는 자신이 매매하던 과라니족의 순수한 모습에 감화하며 헌신적으로 신부의 길을 걷기 시작하지만, 과라니족 마을이 포르투갈 영토로 편입되며 원주민들은 위기에 처한다. 마을을 지키기 위해 무력으로 맞서야 한다는 멘도자와 비폭력 원칙을 지키려는 가브리엘신부는 각자의 방식을 선택하기에 이르게 된다...

## 기도대각성 운동 종료, 최종 집계 결과 140,352볼트



지난 2월 1일부터 시작된 기도대각성 운동이 120일간의 여정을 마치고 지난 5월 31일(금)에 종료됐다. 영락의 모든 성도들이 기도를 체질화하고 이를 통해 교회 공동체의 영적 부흥을 소망하며 시작한 기도대각성 운동은 집계 결과 목표인 12만 볼트(기도 1시간을 1볼트로 환산)를 상회하는 140,352볼트로 최종 집계됐다.

기도대각성 운동 마지막 날인 5월 31일

오후 7시 30분 본당에서는 기도대각성 운동을 마무리하는 특별금요기도회가 열렸다. 120일간의 기도 대장정을 담은 스케치 영상과 시온·베들레헴 연합찬양대의 찬양, 교역자 전원의 특송과 김운성 목사의 설교, 기도회 순으로 진행된 이날의 특별기도회는 120일 간의 영적인 여정을 되돌아봄과 동시에 새로운 영적 발걸음을 힘차게 내딛기로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었다. 김운성 목사는 열왕기상 18:30~40절을 본문으로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제하의 설교를 통해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목표인 12만 시간을 넘어 좀 더 기도하도록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감사의 고백을 전하면서 “주님은 부르짖는 자에게 응답하시니 기도가 오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열심히 계속 기도하며 기도를 체질화시킴으로 은혜를 맛보는 성도가 되길 바란다”고 권면했다.

한편 기도대각성 운동의 열기를 이어가며 성도들의 기도생활을 돕기 위한 후속 방안들이 계속 진행된다.

먼저 본당(목요일 오전 9시~오후 9시, 금요일 오후 1시~오후 5시) 및 벤엘기도실 (매일 오전 5시~오후 11시)이 연중 기도처로 상시 개방되며, 기도 간증과 감사의 제목 등을 적은 ‘한 줄 간증문’도 계속해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기도대각성 운동 기간 동안 성도들의 큰 호응을 얻었던 <말씀의 샘에서 솟아나는 기도> 책자 제3권이 6월 말에 발간된다.

취재 김경옥 선임기자  
사진 IT미디어부, 원종석 기자





## 선생님 사랑합니다! Bravo, 영락 쌤!



지난 5월 19일 교육주일을 맞아 교육주일 특별예배를 비롯한 다양한 행사들이 펼쳐졌다. 총회 지정 청년주일이기도 한 이날 김운성 목사는 ‘한 청년의 고민(시편 119:9)’이란 제하의 설교를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영락의 다음세대들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거룩한 고민과 기도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 감으로 진정한 복을 누리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날 2

~5부 예배에서는 각급 교육부서가 봉헌송을 담당했으며, 선교관 지하 엘피스홀(제2식당)에서는 교회학교 교사들을 위한 ‘Bravo, 영락 쌤!’ 행사가 오후까지 열려 교사들의 노고를 위로했다.

교육주일 특별예배로 드린 오후 찬양예배에서는 교육전담 백성우 목사가 ‘사랑이 이어지다, 생명이 이어지다(창 37:3~4, 45:4~8)’ 제하의 말씀을 전했다 이어 370여명의 교회학교 학생들로 구성된 교육부 연합찬양대가 특별찬양을 드렸다. 이날 특별예배 시간에는 오랜 기간 교회학교 학생들을 사랑으로 섬긴 장기 근속교사(40년 근속자 3명, 30년 근속자 3명, 20년 근속자 17명, 10년 근속자 37명)에 대한 시상과 축복의 시간도 함께 가졌다.

취재 최윤미 기자 사진 원종석 기자

## 빛의 자녀들이여 행하라! 2019 영락청년 선교비전 열려

2019 영락청년 선교비전이 ‘빛의 자녀들이여 행하라(엡 5:8)’를 주제로 지난 5월 24일(금)부터 26일(주일)까지 열렸다. 삼일교회 송태근 목사를 강사로 모시고 진행된 이번 영락청년 선교비전은 5월 24일 낮 선교바자회를 시작으로 삼 일간에 걸친 말씀집회와 청년회 후원선교사 중보기도회(25일), 영락 청년들로 구성된 ‘SOLAR C 합창단’의 특별찬양(26일 찬양예배 시간)



등 다양한 순서들로 진행됐다. 특히 강사로 나선 송태근 목사는 선교비전 기간 중 세 차례의 설교를 통해 영락 청년들의 선교적 소명의식을 일깨우고 비전을 고취시켰다. 이번 선교비전 기간 중 봉헌한 선교목적 헌금과 선교바자회 판매 수익금 전액은 금년도 하기선교봉사 지역의 교회와 청년회 파송선교사(7개교 11명) 후원을 위해 사용되어진다. 한편 청년부는 8월 13일(화)부터 17일(토)까지 충남 보령, 홍성, 예산군에서 제43차 하기선교봉사를 펼치며, 9월에는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와 대만 가오슝에서 제28차 해외선교 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제공 청년부

## 음악부 음악학교(영성수련회), ‘기도와 찬양의 삶’을 주제로 열려



음악부 음악학교(영성수련회)가 지난 5월 25일(토) 오후 5시 음악부 산하 8개 찬양대 450여명의 대원들과 실행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베다니홀에서 열렸다. 참석자들이 다함께 부르는 찬양과 차동혁 지도목사의 기도로 시작한 이번 음악학교에서는 지난 3월 창단한 할렐루야찬양대(수요1부기도회 담당)의 특별 찬양과 음악부장 이종오 장로의 인사메시지가 있었다.

이날 음악학교 강사로 나선 김태섭 교수(장신대 신약학)는 ‘기도와 찬양의 삶(마 7:7~12)’이라는 주제의 영성 강의를 통해 깊이 있는 말씀과 본인의 영적 경험을 적절하게 결합하여 참석자들 모두가 깊은 감동을 받았다. 이어 베다니찬양대장 이석호 장로의 인도로 음악부 모든 구성원들, 특별히 찬양대 지휘자들과 오르간 반주자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중보기도회를 음악학교를 마무리 하였다.

제공 김수홍 집사(음악부 서기)

## 북한선교부, 2019 제2차 영락포럼 개최

북한선교부(부장 홍영남 장로)가 주관하는 ‘2019 제2차 영락포럼’이 지난 6월 9일(주일) 오후 1시 50주년기념관 503호에서 열렸다. 북한 관련 최신 동향과 시사적 현안을 기독교적 관점에서 이해하고, 성도들에게 북한선교 관련 전문성과 사명감을 고취시키고자 열리는 ‘2019 영락포럼’은 지난 3월에 이어 이번이 2회째로 특별히 이번 포럼은 ‘2019 북한선교대회’ 행사의 일환으로 열렸다.



약 300여명의 교우들이 참석한 이날 포럼에는 이춘근 박사(국제정치아카데미 대표)가 강사로 초빙되어 ‘북한 핵문제와 트럼프의 한반도 전략’을 주제로 약 1시간 30분가량 열띤 특강을 진행했다. 이 박사는 참석자들에게 격동하는 한반도 정세를 설명하면서 북한 동포와 자유인에 대한 지속적 관심을 강조하기도 했다. 한편 ‘2019 영락포럼’은 9월에 한 차례 더 예정되어 있다.

취재 박진현 기자 사진 북한선교부

## 믿음·소망·사랑·화평! 남선교회 연합 체육대회 열려



선교부가 주관하고 1~4남선교회가 주최한 '2019 남선교회 연합 체육대회'가 지난 5월 25일(토) 대광고등학교에서 열렸다. 화창한 날씨 가운데 아침 일찍부터 모인 남선교회 회원들로 등록 장소에는 나눔과 친교의 대화가 넘쳐났고 올드보이 하모니카팀의 축하공연으로 식전 분위기는 더욱 열기를 띠었다. 1부 순서로 진행된 경건회에서는 김운성 목사가 '목줄을

풀고'라는 제하의 말씀을 전했고, 1남선교회장 이흥로 장로의 개회선언과 선교부장 김순미 장로의 격려사, 당회 서기 이창민 장로의 축사로 식전 행사를 마쳤다.

믿음팀(1,3,5,7지회), 소망팀(2,4,6,8지회), 사랑팀(9,11,13,15,17지회), 화평팀(10,12,14,16,18지회) 이상 4팀으로 나뉘어 진행된 이번 체육대회는 연합게임 '박터트리기'로 시작됐다. 모든 참가자들이 공알 주머니를 힘차게 던지자 남선교회 회원과 가족들의 환호 속에 2개의 박에서 '생명을 낳아 기르는 교회'와 '믿음·소망·사랑·화평'이 쓰인 현수막이 펼쳐지며 힘찬 팡파르와 함께 남선교회 체육대회 시작을 본격적으로 알렸다. 계속해서 점프릴레이, 공나르기, 보디가드 피구, 발야구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통해 마음껏 웃고 뛰는 가운데 500여명의 참가자들은 한마음 한뜻이 되었다. 아울러 자녀를 위한 게임으로 사람을 찾아 달리기, 보물찾기 등의 번외 경기가 진행되어 영락의 전 세대가 함께 하는 시간이기도 했다.

정성껏 준비한 도시락이 제공된 점심시간은 각 교구마다 풍성한 교제의 시간이 되었으며 오후에도 계주와 경품 추첨 등 다양한 순서가 이어져 화합과 친목의 장이 되었다. 믿음팀과 사랑팀의 공동우승으로 막을 내린 남선교회 체육대회는 '생명을 낳아 기르는 남선교회'의 선교비전을 함께 나누는 은혜의 시간이기도 했다.



제공 김무섭 안수집사(2남선교회장) 사진 박상수 안수집사

## 2019년 1학기 영락상담대학 종강, 2학기 8월 25일 개강



상담부(부장 김두형 장로)가 주관하는 영락상담대학이 6월 16일(주일) 금년도 1학기 과정을 종강했다. 지난 2월 24일(주일)부터 16주간 진행된 이번 학기에는 김기철 교수(배재대) '대상관계 이론과 신앙', 여한구 교수(국제신학대학원) '이상심리학 및 상담의 실제' 등의 강의가 진행됐으며, 39명의 수료생을 배출했고 모든 과정을 수료한 4명이 전화상담 실습과정에 있다.

영락상담대학은 현재 1년에 2학기로 2년 4학기, 총 8과목의 교육과정을 편성하여 모든 과정을 수료하면 전문능력을 갖추기 위한 실습과정을 거쳐 우리 교회 상담부의 전화상담원으로 봉사하게 된다. 또한 희망자에 한하여 위의 자격을 갖추고 한국목회상담협회에서 실시하는 소정의 교육과 시험, 서류전형 등의 과정을 거치면 기독교상담사 2급도 취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2학기 과정은 8월 25일부터 12월 15일까지 16주간(간증주일 및 추석연휴 휴강) 주일 오후 2시 봉사관 504호에서 열리며 노항규 교수(한일장신대) '인간이해와 발달심리학', 하재성 교수(고려신학대학원) '집단 및 위기상담' 강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영락상담대학의 신청자격 조건은 60세 이하의 본 교회 제직으로, 1차 서류심사 및 2차 면접심사를 거쳐 선발된다. 2학기 전형일정은 원서접수 기간 7월 14일~7월 28일, 면접일 8월 4일, 합격자 발표 8월 11일로 예정되어 있다.

제공 김무현 안수집사(상담대학 팀장) 사진 원종석 기자

## 안수집사회 영성수련회

안수집사회(회장 한기윤 안수집사) 영성수련회가 100명의 안수집사 회원들과 64명의 동반 배우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6월 6일(목) 남한산성 영락수련원에서 열렸다. 이날 수련회에서는 김운성 목사가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제하의 설교를 전했다. 오후 순서로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금년도 향촌직 선거에 대한 안수집사들의 솔직한 자기반성의 시간을 가졌으며 향후 교회 향촌직 선거제도 개선방향에 대한 진지한 토론과 의견수렴의 장을 열기도 했다. 이날 수련회에 참석한 회원들은 교회 공동체의 충성된 청지기로서 생명을 낳아 기르는 안수집사회가 되기를 다짐하며 영성수련회의 모든 일정을 마쳤다.



제공 안수집사회



## 권사회 주관으로 드린 은퇴권사 감사예배



지난 5월 28일(화) 오전 11시 본당에서 권사회 주관으로 은퇴권사 7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은퇴권사 감사예배를 드렸다. 홍용희 권사(권사회 회장)의 인도로 시작한 1부 경건회에서 오정선 권사(권사회 부회장)의 기도와 은퇴권사 찬양대의 찬양에 이어 김운성 위임목사가 ‘그만해도 족하니(신 3:23~29)’라는 제하의 말씀을 전했다. 권사회 총창단의 특송과 위임목사의 축도

로 1부 경건회를 마쳤다. 2부 친교시간에는 은퇴권사회 이길선 회장이 매년 5월마다 은퇴권사들을 섬기는 권사회에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권사회에서는 참석한 은퇴권사님들에게 감사와 위로의 마음을 담아 선물과 함께 식사를 제공했다.

제공 권사회 사진 원종석 기자

## 산불 재해를 입은 속초·고성지역과 영동극동방송에 구호성금 전달

지난 4월 4일 강원도 속초시와 고성군 일대에 발생한 산불로 인해 13명의 사상자와 4,000여명의 이재민이 발생하고 1,757헥타르의 산림과 영동극동방송국을 비롯한 시설물 총 916곳이 전소되는 등 큰 피해를 입었다.

우리 교회는 산불 피해를 입은 속초·고성 지역의 피해복구와 주민들을 위한 구호성금을 전달하기로 결정하고, 지난 5월 21일(화) 김운성 위임목사와 당회 서기 이창민 장로, 사회봉사부장 나선환 장로, 시설관리부장 김명권 장로, 행정처장 이종근 장로, 이정훈 설악산수양관 담당목사 등이 속초시(김철수 시장)를 방문하여 2,000만원 상당의 상품권, 고성군(이경일 군수)에 3,000만원, 영동극동방송국(신요섭 지사장)에 1,000만원을 구호성금으로 전달했다. 방문한 기관의 기관장들로부터 피해 현황과 복구 상황을 들었으며 김운성 목사의 기도로 피해 주민과 복구 작업에 참여한 공무원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평강이 있기를 간구했다.



제공 행정처

### 바로 잡습니다

지난 호(6월호) 교회소식 57면에 실린 은퇴제직상조회 신규가입 안내 기사 중 하단의 ‘총무 김영대 장로’는 ‘총무 신동윤 장로’로 바로 잡습니다.

##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 새가족 환영 등록일(5월 10일~6월 9일)

| 등록일    | 이름       | 교구 | 구역  |
|--------|----------|----|-----|
| 5월 12일 | 이한구      | 07 | 031 |
|        | 양영희      | 01 | 004 |
|        | 심언례      | 11 | 015 |
|        | 김기달      | 02 | 036 |
|        | 김경덕      | 03 | 027 |
|        | 김혜경      | 02 | 036 |
|        | 심종희      | 08 | 024 |
|        | 최희승      | 08 | 024 |
|        | 한장수      | 09 | 033 |
|        | 이호영      | 04 | 025 |
|        | 홍유영      | 77 | 777 |
|        | 신상호      | 14 | 049 |
|        | 박정미      | 14 | 049 |
|        | 김효진      | 08 | 021 |
|        | 김진수      | 02 | 052 |
|        | 최영근      | 08 | 021 |
|        | 전영수      | 03 | 027 |
|        | Ira Kwon | 77 | 777 |
|        | 김선희      | 14 | 038 |
| 5월 15일 | 김은세      | 77 | 777 |
|        | 이윤아      | 09 | 020 |
| 5월 17일 | 박말분      | 10 | 004 |
| 5월 18일 | 허남일      | 10 | 051 |
| 5월 19일 | 조용철      | 03 | 024 |
|        | 이윤진      | 07 | 000 |
|        | 강렌니      | 17 | 020 |
|        | 배우리      | 03 | 015 |
|        | 최수호      | 08 | 024 |
|        | 박성경      | 09 | 023 |
|        | 유이레      | 12 | 035 |
|        | 윤하운      | 11 | 026 |

| 등록일    | 이름  | 교구 | 구역  |
|--------|-----|----|-----|
| 5월 21일 | 김경자 | 09 | 000 |
| 5월 26일 | 김기순 | 05 | 005 |
|        | 윤경자 | 11 | 064 |
|        | 오경자 | 18 | 041 |
|        | 김우복 | 08 | 000 |
|        | 변영실 | 04 | 073 |
|        | 왕경희 | 16 | 000 |
|        | 김봉수 | 10 | 000 |
|        | 구자환 | 03 | 039 |
|        | 홍성분 | 12 | 031 |
|        | 홍성숙 | 09 | 049 |
|        | 박성근 | 06 | 045 |
|        | 홍현구 | 12 | 056 |
|        | 허승무 | 07 | 061 |
|        | 김경숙 | 06 | 045 |
|        | 유인석 | 07 | 013 |
|        | 채예순 | 12 | 056 |
|        | 강태진 | 11 | 013 |
|        | 현혜영 | 11 | 013 |
|        | 정혜원 | 07 | 013 |
|        | 김평주 | 04 | 022 |
|        | 현승수 | 08 | 019 |
|        | 이정미 | 04 | 022 |
|        | 김선자 | 10 | 000 |
|        | 정형월 | 07 | 048 |
|        | 장성숙 | 15 | 033 |
|        | 홍미란 | 06 | 014 |
|        | 김보경 | 05 | 059 |
|        | 이기태 | 13 | 037 |
|        | 박대성 | 15 | 000 |
|        | 김은양 | 09 | 046 |

교구 : 70은 고등부, 77은 국제예배, 80은 대학부, 90은 청년부  
 구역 : 000은 가등록, 99는 보류, 888은 교육부

| 등 록 일  | 이름    | 교 구 | 구 역 |
|--------|-------|-----|-----|
| 5월 26일 | 강복영   | 02  | 014 |
|        | 서일영   | 04  | 073 |
|        | 유수선   | 08  | 000 |
|        | 신정아   | 03  | 033 |
|        | 전우경   | 09  | 024 |
|        | 김영애   | 16  | 000 |
|        | 구본화   | 03  | 039 |
|        | 김세중   | 06  | 059 |
|        | 김낙윤   | 18  | 032 |
|        | 임희원   | 09  | 009 |
|        | 감성희   | 09  | 049 |
|        | 윤지희   | 90  | 888 |
|        | 이누리   | 06  | 059 |
|        | 김정현   | 05  | 018 |
|        | 신가은   | 08  | 015 |
|        | 권하선   | 16  | 014 |
|        | 신사은   | 08  | 015 |
| 5월 29일 | 이은찬   | 04  | 098 |
| 6월 2일  | 추일수   | 14  | 000 |
|        | 허수영   | 04  | 025 |
|        | 박명숙   | 11  | 034 |
|        | 홍채명   | 09  | 030 |
|        | 추흥근   | 14  | 000 |
|        | 이병훈   | 01  | 000 |
|        | 최선숙   | 04  | 002 |
|        | 서형욱   | 07  | 000 |
|        | 한성근   | 11  | 056 |
|        | 김민정   | 07  | 000 |
|        | 이엔젤리나 | 16  | 000 |
|        | 신효섭   | 07  | 000 |
|        | 이지은   | 10  | 000 |

| 등 록 일 | 이름  | 교 구 | 구 역 |
|-------|-----|-----|-----|
| 6월 2일 | 진석근 | 10  | 000 |
|       | 최중혁 | 08  | 000 |
|       | 이한빈 | 10  | 000 |
|       | 이연우 | 14  | 036 |
|       | 유한비 | 06  | 021 |
|       | 임다온 | 18  | 041 |
|       | 김다희 | 09  | 010 |
| 6월 4일 | 임지호 | 04  | 098 |
| 6월 7일 | 심동석 | 07  | 007 |
| 6월 8일 | 이은수 | 04  | 098 |
| 6월 9일 | 박창원 | 11  | 000 |
|       | 김금순 | 07  | 000 |
|       | 박주환 | 04  | 000 |
|       | 문영근 | 01  | 000 |
|       | 김종선 | 10  | 000 |
|       | 이은순 | 08  | 000 |
|       | 조성표 | 08  | 000 |
|       | 이호영 | 05  | 000 |
|       | 이기옥 | 11  | 000 |
|       | 모형서 | 16  | 000 |
|       | 박순석 | 14  | 000 |
|       | 박대웅 | 05  | 000 |
|       | 김상민 | 06  | 000 |
|       | 이현주 | 06  | 000 |
|       | 이병호 | 03  | 000 |
|       | 권유정 | 08  | 000 |
|       | 정진경 | 10  | 000 |
|       | 김예은 | 03  | 033 |
|       | 김하율 | 14  | 028 |



## 편집장 레터

썸의 계절이 왔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일하며 몸과 마음이 늘어지도록 피곤한 사람들에게 이 계절은 그야말로 환상입니다. ‘썸’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달픈 몸과 마음을 풀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다시 채워주시는 축복이요, 안식의 과정입니다. 땀 흘려 노동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도저히 경험할 수 없는 기쁨의 여로이기도 합니다.

썸은 ‘비움’입니다. 비움은 ‘채움’을 전제로 한 개념입니다. 그러므로 비움이 없이는 채울 수 없습니다. 즉 썸이 없이는 다시 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노동과 안식의 기회를 동시에 주셨다는 것은 그것들의 일맥상통함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의 완성도

‘비움’을 통해서 가능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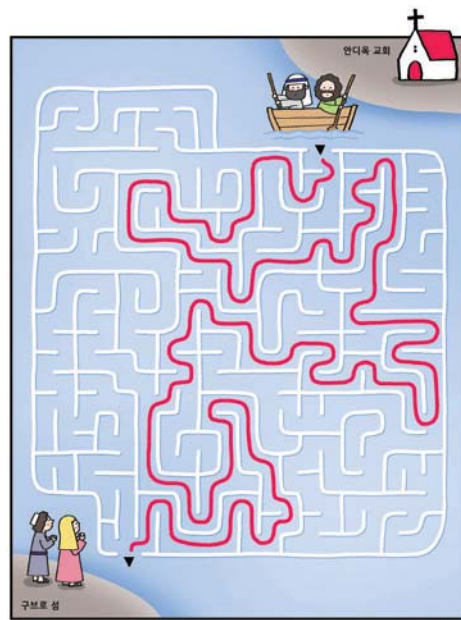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빌 2:6~8)” 인류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의 실체는 텅 비워진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구속사는 아무리 활동해도 차는 일이 없으니, 깊고 깊어서 만물의 근원이기도 합니다.

『만남』 독자 여러분, 이 계절 잘 쉬시기 바랍니다. 썸은 낭비가 아닙니다. 썸은 창의적 노동의 근거이며, 하나님 형상의 드러냄이기도 합니다.

- 편집장 이동훈

## 윤진경의 함께해보아요

6월호 정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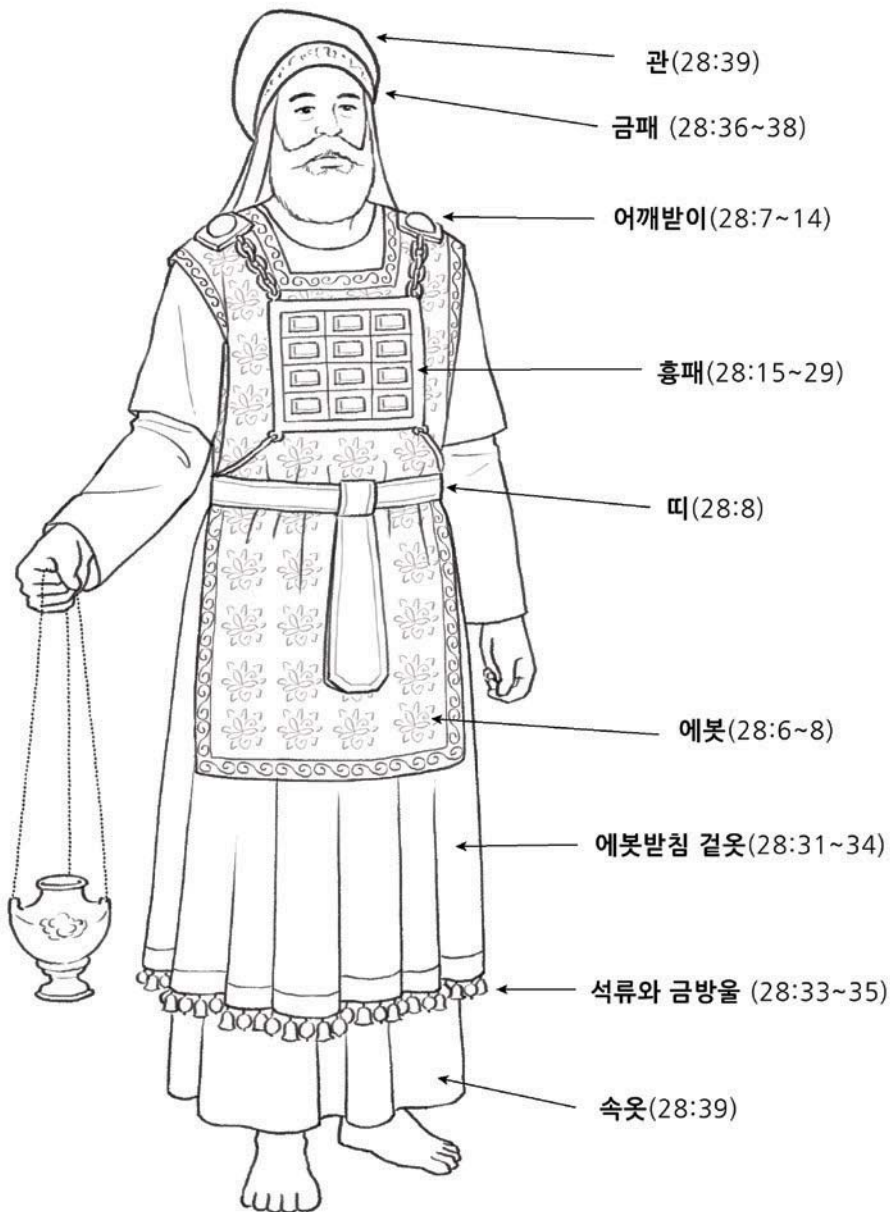
## 윤진경의 함께해보아요

### 컬러링

이 코너는 영락의 모든 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재미있는 놀이로 구성됩니다.

출애굽 시대 제사장의 복장은 청색, 자색, 홍색실로 정교하게 짜고 열두지파를 상징하는 보석을 가슴에 단 것이었습니다. 성경을 참고하여 거룩한 제사장 복장 에봇을 색칠해 보세요~~~

네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출애굽기 28:2~4)



## 목회력

# 7月

|                 |                               |
|-----------------|-------------------------------|
| 6일(토)           | 영락가족 특별새벽기도회                  |
| 7일(주일)          | 청년부·사랑부예배 성찬, 찬양예배 성찬, 세례·입교식 |
| 14일(주일)         | 제직회                           |
| 28일(주일)         | 심방준비회, 사회봉사주일                 |
| 31일(수)~8월 2일(금) | 산상기도회 1차                      |



## 제9회 한가족 한마음 가족수련회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진정한 쉼을 누리고  
기쁨과 은혜를 경험하게 될 가족수련회에 성도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일 정** : 8월 8일(목)~8월 10일(토) 2박 3일  
**장 소** : 설악추양하우스 & 속초 해변  
**대 상** : 미취학 및 초등학생 자녀와 부모(선착순 20가정)  
**프로그램** : 부부특강, 가족테마놀이, 가족기도회, 가족미션 등  
**참가비** : 가족당 30만원  
**문 의** : 7월 7일(주일)까지, 상담부 (봉사관303호)  
 ☎ 2280-0171 / 010-8609-1971



# 교육부 여름사역

# 2019

| 부서   | 행사명            | 일시                  | 주제                              | 장소                                     |
|------|----------------|---------------------|---------------------------------|----------------------------------------|
| 영아부  | 여름성경학교         | 7월 06일(토)~07일(주일)   | 두 손 꼭~ 하나님 도와주세요!               | 본 교회                                   |
| 유아부  | 여름성경학교         | 7월 13일(토)~14일(주일)   |                                 |                                        |
| 유치부  | 여름성경학교         | 7월 20일(토)~21일(주일)   |                                 |                                        |
| 사랑부  | 여름성경학교         | 8월 09일(금)~11일(주일)   | 한라에서 백두까지                       | 제주<br>명성아카데미하우스                        |
| 유년부  | 여름성경학교         | 7월 26일(금)~28일(주일)   | 위대한 여행 #GOD                     | 경기 포천<br>아침햇살수련원                       |
| 초등부  | 여름성경학교         |                     |                                 | 영락기도원                                  |
| 소년부  | 여름성경학교         |                     |                                 | 경기 용인<br>청소년수련원                        |
| CebC | 여름성경학교         | 7월 19일(금)~20일(토)    | 바울의 전도여행                        | 영락기도원                                  |
| 아동부  | 여름 축구캠프        | 7월 31일(수)~8월 03일(토) | One Team, One Spirit, One Goal! | 강원 속초 설악동<br>영락수양관,<br>속초종합경기장         |
| 중등부  | 여름수련회          | 7월 26일(금)~28일(주일)   | Breakthrough(부제: 복음의 능력)        | 경기 양주 딱따구리<br>청소년수련원                   |
|      | 비전트립           | 8월 09일(금)~14일(수)    | Messengers 2019                 | 베트남 하노이                                |
| 고등부  | 여름수련회          | 7월 25일(목)~28일(주일)   |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 충북 충주<br>한마음수련원                        |
|      | 비전트립           | 8월 04일(주일)~10일(토)   |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아가 2:13)         | 인도네시아<br>수라바야 지역                       |
| 베드로부 | 여름수련회          | 7월 13일(토)~14일(주일)   | Live by faith, not by sight     | 영락기도원                                  |
| 대학부  | 여름수련회          | 7월 03일(수) ~ 06일(토)  | 선한 능력으로 서는 세대                   | 충남 태안 신두리<br>'하늘과 바다사이<br>리조트'         |
|      | 하계단기선교         | 7월 29일(월)~8월 06일(화) | 이방의 빛(시 42:6)                   | 베트남 다낭 등<br>6개 지역                      |
| 청년부  | 제43차<br>하기선교봉사 | 8월 13일(화)~8월 17일(토) | 빛의 자녀들이여 행하라! (엡 5:8)           | 충남노회 중·남부시찰<br>9개 교회(충남 보령,<br>홍성, 예산) |



주세페 데 리베라(Jusepe de Ribera), 유화, 104cm×113cm, 1634

## 성 바돌로매의 순교

The Martyrdom of Saint Bartholomew

17세기 스페인 유파의 주요 화가 중 한 사람인 주세페 데 리베라는 바돌로매의 고문 장면을 몇 편 그렸는데, 위 그림은 고문 직전을 묘사한 것이다. 이 그림에서 주목할 만한 것으로 다음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우선, 고문을 하려는 사람(왼쪽)은 바돌로매를 바라보지만, 고문을 당할 사람은 그의 시선에 맞서 노력하거나 그 시선을 피하기 위해 고개를 떨구지 않고, 하늘을 응시하고 있다. 다음, 고문자는 칼날을 갖고 있는데, 이것은 마치 십자가를 든 것처럼 보인다. (이 때문에 이 그림을 처음 보는 사람은 누가 바돌로매인지를 혼동한다.) 칼날을 가는 모습은 십자가의 고통을 선명히 떠오르게 한다. 그리고 그 고통스러운 과정이 진행되기 직전에 시선을 하늘에 두고 있는 사도의 모습에는 그가 그동안 진실(또는 진리)이 이끄는 대로 걸어간 삶의 무게가 실려 있는 듯하다.